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무역학석사 학위논문

# 사드배치가 한중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AAD placement on trade balance  
between Korea and China



지도교수 임재욱

2018 년 7 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정 치 환

본 논문을 정치환의 무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유 일 선 (인)

위 원 임 재 옥 (인)

위 원 정 홍 열 (인)



2018년 07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목 차

List of Tables .....	iii
List of Figures .....	iv
Abstract .....	vi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	5
2.1 사드배치의 추진경과 .....	5
2.2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현황 .....	14
2.3 국제 무역수지의 현황 .....	19
2.4 한·중 무역수지의 현황 .....	23
제 3 장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	28
3.1 선행연구 .....	28
3.2 가설설정 .....	36
제 4 장 연구설계 .....	38
4.1 연구모형 .....	38
4.2 표본선정 .....	40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	51
5.1 실증분석 결과 .....	51
5.1.1 국제무역수지 현황 .....	51
5.1.1.1 국제무역수지의 현황 .....	51

5.1.1.2 국제상품수지 현황 .....	55
5.1.1.3 국제여행수지 현황 .....	59
5.1.2 한중 무역수지 현황 .....	63
5.1.2.1 한중 무역수지 현황 .....	63
5.1.2.2 한중 상품수지의 변화 .....	64
5.1.2.3 한중 여행수지의 변화 .....	67
제 6 장 결론 및 한국의 대응방안 .....	72
참고문헌 .....	76



## List of Tables

Table 1	사드배치의 추진경과 .....	12
Table 2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현황 .....	15
Table 3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현황 .....	16
Table 4	중국의 경제보복 관련 피해 현황 추정 .....	18
Table 5	국제 수출입과 무역수지 현황 .....	20
Table 6	한·중 수출입 현황과 상품수지 현황 .....	25
Table 7	국제 무역수지 및 한중 무역수지의 연간 현황 .....	41
Table 8	통제변수들의 연간 현황 .....	43
Table 9	국제무역수지 및 한중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분기별 현황 .....	44
Table 10	통제변수들의 분기별 현황 .....	49



## List of Figures

Fig. 1	국제 수출입과 무역수지 현황	21
Fig. 2	국제 무역수지 현황(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여행수지의 비교)	22
Fig. 3	한·중 수출, 수입, 수지 현황	26
Fig. 4	한·중 무역수지 현황(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여행수지의 비교)	27
Fig. 5	국제상품수지와 여행수지의 분기별 비교	45
Fig. 6	국제상품수지의 분기별 현황	46
Fig. 7	국제여행수지의 분기별 현황	47
Fig. 8	한중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분기별 비교	48
Fig. 9	한중 상품수지의 분기별 현황	48
Fig. 10	한중 서비스수지의 분기별 현황	49
Fig. 11	연도별 국제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52
Fig. 12	연도별 국제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53
Fig. 13	분기별 국제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54
Fig. 14	분기별 국제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55
Fig. 15	연도별 국제상품수지의 실제치과 추정치의 비교	56
Fig. 16	연도별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57
Fig. 17	분기별 국제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58
Fig. 18	분기별 국제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59
Fig. 19	연도별 국제여행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60
Fig. 20	연도별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61
Fig. 21	분기별 국제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62
Fig. 22	분기별 국제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62
Fig. 23	연도별 한중 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63
Fig. 24	연도별 한중 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64
Fig. 25	연도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65
Fig. 26	연도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66

Fig. 27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	66
Fig. 28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67
Fig. 29	연도별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	68
Fig. 30	연도별 한중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69
Fig. 31	분기별 한중 서비스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	70
Fig. 32	분기별 한중 서비스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70
Fig. 33	분기별 관광수지의 현황 .....	71



# The effect of THAAD placement on trade balance between Korea and China

Jung, Chi Hwa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Abstract

중국은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협의에 들어간 시점부터 여행비자 발급제한, 일부품목에 대한 통관기준 강화, 문화컨텐츠 규제, 현지 한국 투자기업 제재조치 등 경제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국가 간 외교갈등이 고조되면 경제보복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교역국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내 사드배치로 인해 국제무역수지와 한중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한국의 국제수지, 상품수지, 여행수지와 한중간 국제수지, 상품수지, 여행수지이며, 세분화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기별 통계자료 또한 활용했다. 첫째, 사드배치 이전 기간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무역수지 회귀식을 산출한다. 둘째, 사드배치 이후 기간의 무역수지 추정치를 산출한다. 셋째, 산출한 추정치를 무역수지 실제치와 차감하여 차이를 계산한다. 추정치보다 실제치가 낮을수록 사드배치가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국제무역수지, 상품수지, 여행수지는 사드 이슈 이전인

2015년까지는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기별 자료 분석을 통해 추정치보다 실제치보다 낮은 구간이 존재하여 사드 배치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간의 비교에서는 여행수지에서 가장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의존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과 국가별 혹은 기업별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공헌점과 한계점 또한 기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KEY WORDS:** THAAD 사드; Balance of payment 국제수지; China 중국.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하면서 한반도 긴장수위는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규제 강도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 칭함) 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2016년 2월에 시작되었다. 한국정부가 2016년 7월 8일 사드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사드체계 내 레이저시스템의 탐지반경이 최대 2,000km에 달해 자국의 군사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협의에 들어간 시점부터 여행비자 발급제한, 일부 품목에 대한 통관기준 강화, 한국 드라마 방영제한 등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한국 여행상품 판매 등 금지를 지시하였고, 중국 현지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확산되고, 소방당국은 특정 유통계열사 매장에 대한 표적점검을 통해 매장의 1/3 가량을 영업정지 시켰으며, 관영언론의 반한감정은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중국은 과거에도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면 경제보복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교역국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2000년 이후 급성장을 하였으며 과거 20여년간 중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마음껏 누렸다고 볼 수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양국 간의 경제적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어 성장률 등락의 동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국의 통상압력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 양국은 인접한 지리적 조건과 비슷한 전통 문화,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우호적인 정치 관계 형성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오고 있으며 관광교류의 규모도 점차 확대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방문객 1,300만명 중 중국 방문객은 598만 명으로 약 46%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경우도 2015년에 중국을 찾은 한국 방문객은 444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 약 17%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방문객 중 한국관광객이 1위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미국의 강한 압박 그리고 중국과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어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유지에 이익이 되어 사드배치를 결정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안보의 필수품이 아니며 중국의 전략적 위협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보았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상반된 인식 차이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단행한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까지 확보하였고 한국은 중국에 비해 약소국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강해 한국의 입장은 중국의 국제적인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과 협의하여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중국은 자국의 군사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제재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중간 경제교류 현황을 볼 때 사드 문제로 교역 및 투자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관광부문은 앞의 부문에 비해 양국 모두 큰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사드배치로 인한 영향은 국제무역수지뿐만 아니라 한중 무역수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내 사드배치로 인해 국제무역수지<sup>1)</sup>와 한중무역수지<sup>2)</su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

1)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자산증감계정, 오차 및 누락을 포함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2) 한중무역수지도 본 연구에서는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과 사드배치가 공론화되고 2016년 사드배치가 결정됨으로써 국제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상품수지와 관광수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5년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인한 영향이 무역수지에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상품수지와 관광수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5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사드배치를 공론화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견제로 인한 결과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외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된 결과가 혼재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무역수지에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 사드배치로 인한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사드배치가 상품수지와 여행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의 상품수지 및 여행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2000년~2014년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무역수지를 산출한다. 둘째, 2015년~2017년을 사드배치 사건기간으로 설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연도별 무역수지 추정치를 산출한다. 셋째, 2015년~2017년을 사드배치 사건기간의 무역수지 실제치에서 추정치를 차감하여 그 차이를 산출한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OSIS에서 수집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연구 및 보도 자료와 웹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범위 및 연구 구성에 관하여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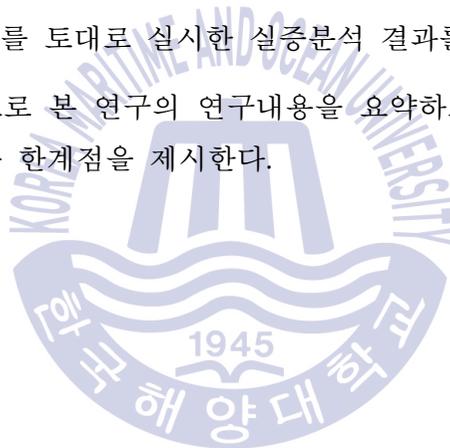
제2장은 사드배치의 추진정책,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현황, 국제무역수지의 현황, 그리고 한·중 무역수지 현황 등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본다.

제3장은 사드배치와 무역수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4장은 연구가설을 참고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표본선정과정을 제시한다.

제5장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한국의 대응방안, 그리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한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2.1 사드배치의 추진경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계획으로 조심스럽게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013년 6월 골드만 삭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을 이용하여 포위 할 수 있다고 강의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밖으로 나오려는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르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올가미를 잡아당기는 ‘중국포위전략’을 주도했다.<sup>3)</sup>

이에 한국 국방부는 2013년 10월 14일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종말 요격 시스템을 4단계로 구축하여 고도 10~150km 미제 사드, 10~60km 러시아제 L-SAM, 10~40km 러시아제 천궁, 10~30km 미제 패트리엇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sup>4)</sup>

로버트 위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2014년 9월 30일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중이며,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유승민 의원은 2014년 11월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했으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아직 사드도입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전국 생방송으로 유승민 의원이 사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사드 도입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5)</sup>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에 수입하기로 계약 체결했다. 비로소 동북아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경쟁을 중국이 먼저 촉발

3) 힐러리 ‘북핵 억지 못하면 중국 포위할 것’, 라디오코리아, 2016.10.15.

4) 軍, 150km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 검토…美 MD 전초?, 뉴시스, 2013.10.15.

5) 한민구 국방 "사드 도입계획 검토한 바 없다", 이데일리, 2014.11.03.

시킨 것이다. 러시아제 사드 S-400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은 2017년에 러시아제 사드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sup>6)</sup>

2015년 3월 5일 마크 리퍼트 대사가 북한의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한미동맹과 사드를 반대하는 좌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국회에서 거의 혼자 사드 조기도입을 주장하던 국방위원장 출신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의 사드 공론화가 급진전 되었다. 2015년 4월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의원은 사드 배치 공론화를 위해 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연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으니, 정부와 청와대의 분명한 판단을 내릴 거로 기대한다.” 라고 압박에 나섰다. 2015년 4월 10일,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아직 사드가 생산 단계인 만큼 어느 국가와도 배치 관련해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발표했으며,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사후에 토론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후 사드 논란은 한동안 가라앉았다.<sup>7)</sup>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최초의 수소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북한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보도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중국측에서는 전화를 안 받았고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한참 동안 설명도 없었다. 이것으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지속되었다. 2015년 전승철 천안문 성루에 올라 양국의 우의를 과시하며 대국민 홍보할 때는 언제고 중국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언론과 여론은 중국의 태도와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2016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배치 반대를 설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사드 배치를 정당화했다.<sup>8)</sup>

6) 러시아, 중국과 첨단 방공미사일 S-400 수출 계약, 연합뉴스, 2014.11.27.

7) 카터 美국방 "사드 배치 장소·시기, 생산상황 따라 결정", 연합뉴스, 2015.07.10.

8) 중전문가들 "박근혜-시진핑 통화, 그 자체로 대북경고 메시지", 연합뉴스, 2016.02.06.  
시진핑에 실망한 대통령 "中역할 기대 말라", 조선일보, 2016.02.13.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는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하였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시작한다.” 라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시사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북한 양쪽 대사에게 항의하였으며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 장관은 2016년 2월 12일, 로이터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칼을 들이대었다.”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sup>9)</sup>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2016년 7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sup>10)</sup> 류제승 정책실장은 2016년 7월 13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건의했으며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되었다.<sup>11)</sup>

한국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전략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측면과 중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원하는 외교적 시그널이 함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배치가 결정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16년 8월 3일 한국인에 대한 상용(비즈니스)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여행업계와 재계가 혼란을 겪었다.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최근 한국내 비자 발급 대행사들에 특정기간 여러 번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수(複數)' 상용비자 발급 조건 변경 사실을 구두상으로 공지했다는 것이다. 국내 비자 발급 대행사가 발급한 초청장만으로 상용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중국 현지에 있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받아야만 상용 복수 비자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사드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또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 한민구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위한 협의 진행중", 연합뉴스, 2016.02.18.

10) 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 지역 이르면 7월 확정, 문화일보, 2016.07.08.

11) 국방부, 사드 경북 성주 배치 공식 발표, 조선일보, 2016.07.13.

12) "중국, 한국인 상용비자 요건 강화"...사드 여파?, 연합뉴스, 2016.08.03.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사설을 실었다. 이날까지 4일 연속 사드 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사설을 실었는데 3일 사설은 그 강도가 다른 차원이었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선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은 일종의 금기였다. 하지만 이날 사설로 이런 금기는 깨졌다고 한다.<sup>13)</sup>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상용비자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그동안 발사실험은 각도를 고각으로 세워서 높이 쏘아서 북한 경계에 떨어뜨렸는데, 이번 발사실험은 정상 각도로 쏘아서 무려 1000Km를 비행했다. 미사일은 일본 EEZ 안에 떨어졌다.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주일 미군 기지가 있으며, 일본 사드 레이더 AN/TPY-2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 미사일 궤적을 경북 성주 방향으로 옮겨놓으면 성주 인근 상공에서 미사일은 150K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여, 사드 체계로는 요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sup>14)</sup>

북한은 북한 5차 핵실험을 2016년 9월 9일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하였다. 모든 운반수단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6년 9월 21일 “사드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면서 2개 포대를 한국이 직접 구매할 것을 시사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장소가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으로 2016년 11월 18일 선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위생 점검,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16일에는 중국 해군 랴오닝호 항공모함과 수십척의 함대가 서해에서 사상 최초 실탄 사격훈련을 했고 사드에 반대하며 한국에 무력시위를 했으며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기항을 거부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sup>15)</sup>

2017년 1월 4일,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13) 사드 고수 밝힌 다음날 黨기관지(인민일보), 朴대통령 욕 집어 으름장, 조선일보, 2016.08.04.

14) 北, 실전용 각도 발사... 주일미군 레이더기지 코앞에 떨어뜨려, 동아일보, 2016.08.04.

15) 中, 롯데에 고강도 세무·소방안전 조사... "사드 보복·표적수사 가능성", 아시아경제, 2016.12.01.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2017년 2월 28일,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2017년 3월 3일,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 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sup>16)</sup>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2017년 3월 7일 시작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 이에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당한 롯데마트는 전체 점포 99개의 점포 중 모두 55곳으로 절반이 넘는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어 2017년 3월 15일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고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금지시켰다.

2017년 3월 20일, 한국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또한 미국 의회는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2017년 4월 27일, 국방부 한미 안보 책임자는 사드가 실제 운용 단계이며 북한이 도발 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주한미군은 사드체계를 하루 만에 작전배치를 끝냈고 사실상 실전 운용 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다음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10억 달러짜리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한국에게 그들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무기체계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며 나도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우린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16) 中 정부, 한국 관광 전면 금지…이미 계약된 관광상품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 중부일보, 2017.03.03.

2017년 4월 3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 비용 부담 논란과 관련하여,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향후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 의회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017년 8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드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발사대 4기가 2017년 9월 7일 성주 기지에 반입되고 건설 자재를 실은 중장비와 트럭들도 반입됐다. 이로써 사드 한 개 포대가 완전히 갖추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28일 “사드 보복조치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추귀홍 중국대사는 다음날 “양국 관계 개선 및 고위급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10일,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대사가 부임하자 중국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왔다고 하며 한중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노영민 대사는 중국 문화에 남다른 애정이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위기였으며 중국과의 협상결과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다.

중국은 2017년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당대회)가 시작되어 24일 막을 내렸으며 그 결과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체제가 강화되고, 시

진핑 사상이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 수준의 지도사상에 오름에 따라 시 주석의 위상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2017년 10월 24일 사드배치 문제로 양국 국방교류·협력이 전면 중단 된지 2년여 만에 필리핀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전격 개최했다. 회담 내용은 비공개지만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심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보여 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25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는 내용을 담아 축전을 보냈으며 다음날 중국은 한국에 단체관광 여행상품을 7개월 만에 등장시켰다. 단체 여행객을 개시한 것은 좋은 징후로 보이며, 19차 당대회가 폐막한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라 집권 2기 지도부가 한국과의 개선 모색 차원에서 한국 단체관광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7년 10월 2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외교부 주체 국제 바자회에서 노영민 한국대사와 만나 “양국관계 우호 형성에 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양국관계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해 양국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0월 30일 한중간 사드 갈등 완화 기류와 관련,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 수준에서 자주 소통하고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 관계를 조속하게 안정되고도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중국 당국이 그동안 사드와 관련, '결연한 반대'와 '철회 촉구' 등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할 때 다소 완화된 것이다.

2017년 10월 31일, 외교부는 한중간 진행되어 온 사드문제 등과 관련한 협의

내용을 담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 내용은 양측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상의 사드가 배치되기까지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과정을 Table 1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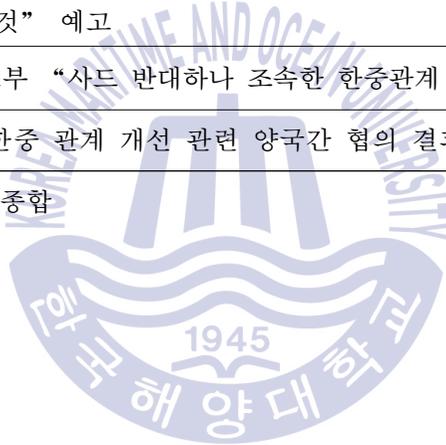
Table 1 사드배치의 추진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13.06.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중국이 북한의 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고 발언
2013.10.14.	유승민 의원 국회 제출 보고서 - 사드 배치 고려
2014.09.30.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협의 중
2014.11.03.	유승민 의원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
2014.11.27.	중국의 러시아관 사드 S-400 1포대를 30억 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 체결
2015.03.05.	마크 리퍼트 대사가 습격 당하여 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의 사드 공론화가 급진전 됨
2015.03.21	환구시보,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
2015.04.02.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의원의 사드 배치 공론화 및 대통령께 직접 건의
2015.04.10.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 - 사드 배치 논의 단계 아니다 사드 논란 일시적으로 가라 앉음
2016.01.06.	북한 4차 핵실험. 중국은 이에 반응하지 않음
2016.01.21.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방부에 사드 한반도 배치 권고
2016.02.05.	중국 시진핑 주석 -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여 사드 배치 반대 설득
2016.02.07.	북한 광명성 4호 발사. 한국 정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고려 입장
2016.02.12.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국익을 해친다고 미국을 비난함

2016.07.08.	한·미 사드 1개 포대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
2016.07.13.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 발표
2016.08.09.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상용 비자 발급 요건 강화 함 중국 <인민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실시
2016.08.08.	미국 괌 사드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사드 레이더의 전 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짐
2016.09.09.	북한 5차 핵실험. 사상 최대 규모
2016.09.21.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포대 2개 추가 구매할 것을 시사 함
2016.11.18.	중국 정부의 롯데 계열사에 대한 사드 보복 시작
2016.12.16.	중국 해군의 함대가 서해에서 사상 최초 실탄 사격훈련
2017.01.04.	중국 외교부가 보복을 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
2017.02.28.	중국의 계속되는 한국 비난 및 공격 발언
2017.03.03.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킴
2017.03.07.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시작. 사드 체계 일부 도착
2017.03.08.	중국 내 롯데마트 절반 이상 영업정지 처분
2017.03.15.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금지국가 지정, 한국행 단체여행 전면 금지
2017.03.20.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의 WTO협정 위배를 정식으로 제기
2017.03.23.	미국 의회가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
2017.04.27.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실제 운용 단계에 들어 감
2017.04.28.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드 비용은 한국이 내야 한다고 발언
2017.04.30.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 인함. 하지만 추후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향후 사드 비용도 재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힘
2017.06.29.	문재인 대통령, 미국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 초한 합의이고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
2017.08.12.	국방부와 환경부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실시.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017.09.07.	사드 한 개 포대 완성.
2017.09.28.	문재인 대통령 “중국 관계 복원은 우리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

2017.09.29.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양국 관계개선, 고위급 신뢰회복이 우선”
2017.10.10.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대사 부임
2017.10.13.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협의
2017.10.18.	중국 제19차 당 대회
2017.10.24.	한중 국방장관 회담 필리핀서 개최
2017.10.25.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축전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
2017.10.26.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7개월 만에 등장
2017.10.29.	왕이 중국 외교부장 “한중관계 진전 기대”
2017.10.30.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중관계 발전 위해 조만간 사드 관련 좋은 조치 있을 것” 예고
2017.10.30.	중국 외교부 “사드 반대하나 조속한 한중관계 안정·건강 궤도 원해”
2017.10.31.	한중,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발표

\* 자료: 각종 언론기사 종합



## 2.2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현황

본 절에서는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현황과 경제보복조치로 인한 피해 현황을 추정하여 제시한다. 중국은 과거에도 주변 국가들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다음의 표에 분쟁사례와 보복조치 현황을 제시한다. 본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소의 보고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다<sup>17)</sup>

17) 한재진, 천용찬, 2016.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Table 2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현황

구분	분쟁사례	중국의 보복조치	
일본	2014.04	일본의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 에어컨에 대해 100% 특별관세 부과
	2010.09	디아오다오(셴카쿠) 영토분쟁	對 일본 희토류 수출 중단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2012.09	디아오다오(셴카쿠) 영토분쟁	중국 정부의 일본 관광 제한 촉구
필리핀	2009.02	남중국해 영토분쟁	필리핀 내 중국인 관광객 철수
베트남	2014.06	남중국해 영토 분쟁	중국내 베트남 기업 사업 입찰 중지
한국	2000.06	한국의 중국산 마을 세이프가드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

위와 같은 중국의 태도 때문에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격렬한 반대로 동북아지역의 긴장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더욱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가 2016년 7월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한국측 인사를 강등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한류스타의 중국내 활동을 전면금지하는 한류 제한령 지시, 한국인의 비즈니스 발급요건 강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세무조사 및 소방안전시설 점검, 한국산 화학제품(폴리아세틸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각종 문화행사 중단 및 취소, 한국행 여행 전면 금지 등 드러난 경제보복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핵심이익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드배치는 한·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몰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사드배치 결정을 한국정부가 철회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내 사드배치에 관한 텔레마적 상황과 논란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근거한 결과로 볼 수 있다(이기

완, 2015; Hwang 2015). 중국이 냉전 시기의 중국이거나 미국과의 패권을 다투는 수정주의 국가로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경제적, 군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정책 선택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과 경제적 군사적 위상에 부합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중국의 국제정치 위상에 대한 경쟁이 빚어 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Table 3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단행한 경제적 보복조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중국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중간 경제교류 현황으로는 사드 문제로 인하여 교역 및 투자에 일부 악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부문 피해는 양국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3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현황

구분	경제보복조치 현황	시기
기업	A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한국측 인사 직급 강등 조치	2016.07
	한국인 비즈니스 비자발급 절차 강화	2016.09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2016.09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	2016.10
	롯데마트 세무조사 및 소방안전시설 점검	2016.11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	2016.11
	한국산 화학제품(폴리아세틸,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착수	2016.11
	중국 홈쇼핑에 한국산 제품 편성 축소	2016.11
	한국산 전세기 1~2월 운항 불허 조치	2016.12
	한국산 라면, 김, 음료 등 식품 수입 불허	2016.12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식중독균 검출)	2017.01
	롯데마트 영업점포 절반이상 영업정지	2017.03
	LG생활건강 항저우공장 소방점검 및 가동중단 압박	2017.03
	현대자동차 중국 내 매출 급감	2017. 1/4분기
	중국 녹지주그룹 유한공사 제주상품 500억원어치 수입 협약 불이행	2017.06
	중국내 롯데마트 전면 철수	2017.09

문화· 컨텐츠	한류스타의 중국내 활동 금지 지시	2016.08
	한류스타 팬미팅 및 K=Pop 공연 취소	2016.08
	한류 스타 중국내 방송 통편집	2016.08
	한중 합작 영화 개봉연기 및 제작 중단	2016.08
	한국 연기자 출연 중국드라마 배우 교체	2016.09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한중 동시방영 심의 지연	2016.10
	KBSW ‘화랑: 더 비기닝’ 중국심의 통과 및 한중 동시 방영 확정 후 돌연 방영 중단	2016.12
	조수미, 백건우 등 클래식 공연 취소	2017.01
	국립발레단 김지영 중국공연 불발	2017.02
관광	상용비자 발급 조건 강화	2016.08
	저가 관광상품 규제	2016.10
	한국행 단체 관광객 20% 감축 지시	2016.10
	인천, 제주, 부산행 크루즈선 운항 축소 지시	2017.01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 전면금지	2017.03

\* 자료: 언론기사 및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종합

이와 같이 중국은 직·간접적인 대응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유통 및 무역업종, 문화·컨텐츠 그리고 관광업종에서 피해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 Table 4에서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 현황을 추정하여 제시한다.

먼저, 유통 및 무역업종을 보면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 기준으로 경제손실 규모를 약 1.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 외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사드로 인한 피해 규모가 다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컨텐츠부문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컨텐츠 산업의 성장 기대감을 꺾었으나 GDP비중이 작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의 규제로 한국의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컨텐츠 부문은 수출피해가 예상되므로 약 87.2조원의 경제손실이 예상된다.<sup>18)</sup>

18) 한재진·천용찬. 2017.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한중간 경제 협력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7-10호.

관광부문에서는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중국의 사드보복 여파로 피해액은 한국이 중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갈등의 장기화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은 전체 연간 방한 외래 관광객 1,724만명의 약 46.3% 수준인 798.9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손실액은 전체 연간 방한 외래 관광객 지출액 280.2억달러(32조 5,208억원)의 55.8% 수준인 18조 1,317억원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부가가치유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유발손실도 국내 총 취업자 수 2,623.5만명의 1.5% 수준인 약 40만명이 예상된다(현대경제연구원). 이에 한국은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간 관광 협력 강화, 관광객 대상 이벤트 개최, 지역별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하고 관광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able 4 중국의 경제보복 관련 피해 현황 추정

구분	경제보복 관련 피해 현황 추정	출처
유통 무역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재 수출 약화에도 전체 수출 영향 미미</li> <li>• 자금이탈로 단기 채권금리의 일시 상승 가능성은 있으나 전체 외국인 주식자금 비중에서 1.8%에 불과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력 미미</li> </ul>	신한금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li> <li>• 1.4조원의 경제손실 예상</li> </ul>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2017.05.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롯데마트 2017년 연말까지 1조원 넘는 피해 예상으로 철수</li> </ul>	한국경제 (2017.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영향 미미</li> </ul>	신현수, 산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드관련 중국의 무역규제 조치가 대중 상품수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li> </ul>	한국은행
문화·컨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대감을 꺾으나 GDP비중이 작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li> </ul>	신한금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7.2억원의 경제 손실예상</li> </ul>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2017.05.02.)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관광객 약 800만명 감소로 인한 직접손실 18조, 생산유발손실 34조, 부가가치유발손실 15조, 취업유발손실 40만명</li> </ul>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2017.0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여행 제한조치로 인한 직·간접 피해 5조~15조</li> </ul>	이임자, 조용원 산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관광객 저하로 한국 비거주자 국내소비 19% 축소</li> </ul>	신한금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하면 GDP 0.2% 하락하고 고용은 2.5만명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li> </ul>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1조원 규모의 경제손실 예상</li> </ul>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2017.05.02.)

\* 자료: 권용현, 이지상, 2018. 각종 언론기사 및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등 종합

### 2.3 국제 무역수지의 현황

Table 5는 국제 수출액과 수입액 그리고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무역수지의 현황을 제시한다. 국제무역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13,267,409천불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수출이 전년에 비하여 13.9%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25.8%로 대폭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40,449,040천불의 유래 없는 증가를 가져왔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의 증가폭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수지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수입보다 수출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의 금액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2015년부터는 수입보다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의 폭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Table 5 국제 수출입과 무역수지 현황

년도	수출		수입		수지 (천불)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1999년	143,685,459	8.6	119,752,282	28.4	23,933,177
2000년	172,267,510	19.9	160,481,018	34.0	11,786,492
2001년	150,439,144	-12.7	141,097,821	-12.1	9,341,323
2002년	162,470,528	8.0	152,126,153	7.8	10,344,375
2003년	193,817,443	19.3	178,826,657	17.6	14,990,786
2004년	253,844,672	31.0	224,462,687	25.5	29,381,985
2005년	284,418,743	12.0	261,238,264	16.4	23,180,479
2006년	325,464,848	14.4	309,382,632	18.4	16,082,216
2007년	371,489,086	14.1	356,845,733	15.3	14,643,353
2008년	422,007,328	13.6	435,274,737	22.0	-13,267,409
2009년	363,533,561	-13.9	323,084,521	-25.8	40,449,040
2010년	466,383,762	28.3	425,212,160	31.6	41,171,602
2011년	555,213,656	19.0	524,413,090	23.3	30,800,566
2012년	547,869,792	-1.3	519,584,473	-0.9	28,285,319
2013년	559,632,434	2.1	515,585,515	-0.8	44,046,919
2014년	572,664,607	2.3	525,514,506	1.9	47,150,101
2015년	526,756,503	-8.0	436,498,973	-16.9	90,257,530
2016년	495,425,940	-5.9	406,192,887	-6.9	89,233,053
2017년	573,694,421	15.8	478,478,296	17.8	95,216,125

\*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1은 국제 수출, 수입, 무역수지의 현황을 도식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2008년을 보면 수출보다 수입금액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출

에서 수입을 차감한 무역수지에서조차 추세선 아래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위기가 국제무역에 미친 영향을 무역수지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수출과 수입의 폭이 넓어지면서 무역수지의 금액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2015년부터는 수출과 수입의 폭이 가장 넓어져 무역수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 국제 수출입과 무역수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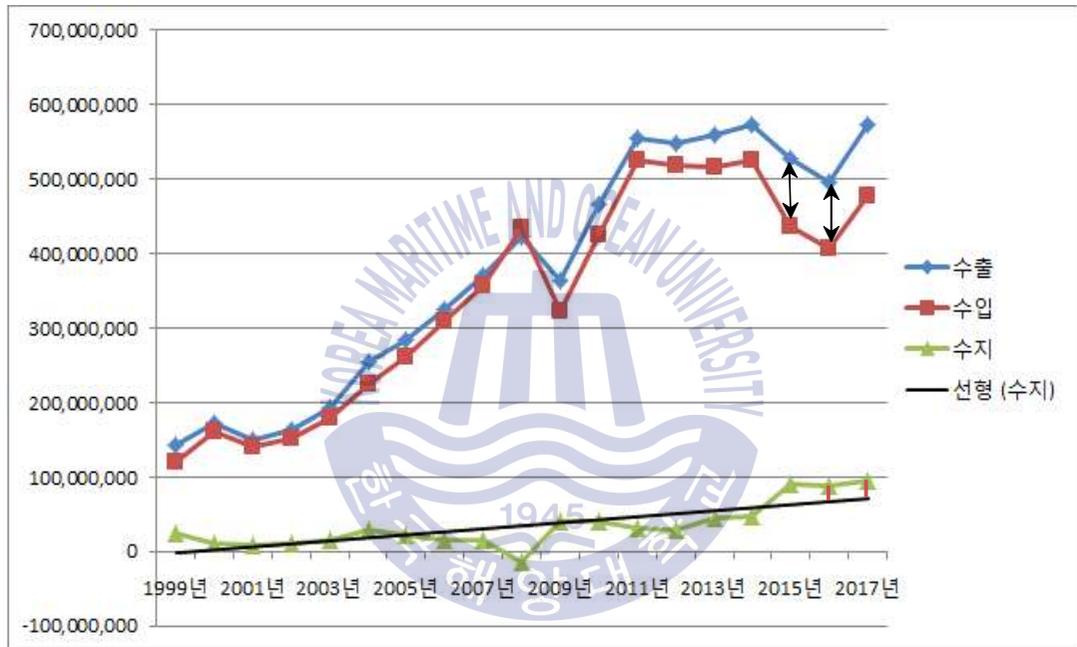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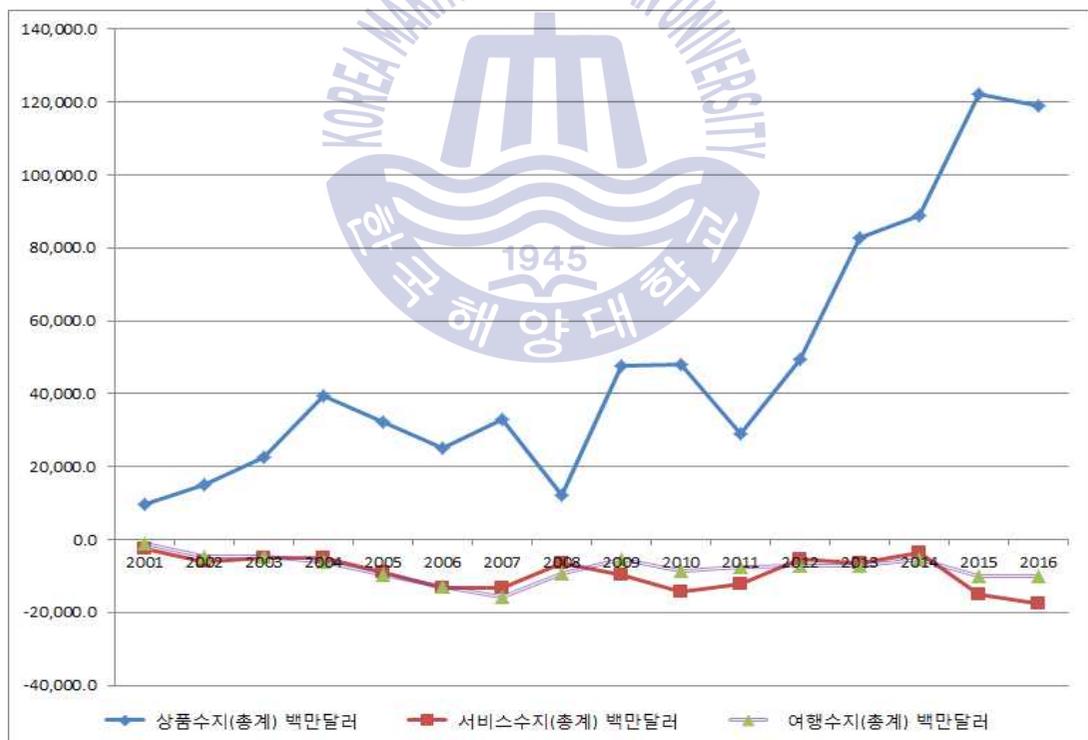


그림 2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여행수지의 현황을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여행수지는 서비스수지에 포함되지만,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2014년 11월 유승민 의원이 사드배치의 조기도입을 주장하였고 2015년 4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사드배치를 공론화 하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 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이 관광산업인 것으로 판단되어 여행수지와 서비스수지를 분리하였으며 사드배치 전후의 여행수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품수지의 변화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 상품수지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1년에도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후 2012년부터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을 보면 사드배치가 결정되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단행된 이후에는 상품수지가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수지와 여행수지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의 위축에 따른 결과로 외국·내국인 관광객의 급감, 경기침체(배형석, 양성국 2017)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인한 결과가 함께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2 국제 무역수지 현황(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여행수지의 비교)



## 2.4 한·중 무역수지의 현황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중국을 의식한 외교적 행보를 취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의 강연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정치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이 협력을 같이 하자는 것이며 북한이 비핵화를 이끌 수 있도록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요구하였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중국이 보여준 놀라운 경제성장을 북한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평화의 길을 가자고 강조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의견 차이는 소통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것도 강조하였다. 둘째, 경제 통상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자고 제의하였다. 한중 FTA는 경제통상관계의 긴밀성을 구축하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보분야, 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이점이 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의 통화협력은 유럽발 재정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우호증진인데 쌍방향 문화와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자고 강조하였다. 중국 내에서는 K-Pop 등 한류 문화, 한국 내에서는 공자학원 및 중국어를 배우는 열풍을 강조하면서 상호 우호증진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노력한 결과는 한국과 중국무역을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까지 확보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비해 약소국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강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끼치는 영력과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일종의 외교적 갈등에 의한 경제제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Morgan, Bapat, and Kobayashi(2013)는 경제제재를 상대방 국가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경제적 관계를 제한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중국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경제제재의 전형적인 행태로 판단된다. 경제제재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황태희(2013)는 주변 주요 교역국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제제재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Pape(1997)과 Cho(2010)도 경제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Hufbauer, Schott, and Elliott(2007)의 연구에서는 종합적으로는 경제제재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대상 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갈등 및 경제제재의 상황을 보면 중국은 사드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외교적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현정과 주재우(2017)는 직접적인 정치, 경제적 갈등이 아닌 자국방어를 위한 무기를 배치하는 사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현 상황을 특수한 경우라고 지적하였으며 권용현과 이지상(2018)은 “사드배치는 유방(중국)을 겨누는 항우(미국)의 칼춤”이라고 비유<sup>19)</sup>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말을 인용하여 사드배치의 문제가 실상은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지만 무기배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해준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제재와는 구별되는 경우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기완(2015)은 중국이 미국과의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한국정부를 압박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한국의 여론을 중국쪽으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박희락(2016)은 중국이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표방하지도 않으면서 일종의 대가로 한국의 자율성 양보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 없이도 사드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이 사드 경제보복의 본질이고 한국은 일종의 매개역할로서 일방적인 피해만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0)</sup>

이렇듯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이 경제보복을 단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효과는 국내 경제 전반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19) 조선일보. 2016.02.15. 기사

20) 권용현, 이지상, 2018. *외교적 갈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드배치에 따른 이슈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7권 제1호: 67-94.

이에 Table 6은 한국과 중국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상품수지의 현황을 제시한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과 수입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수출과 수입은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 이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상승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의 수출과 수입은 또 다시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형성, 양성국(2017)의 연구결과와 같이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의 결과가 함께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한·중 수출입 현황과 상품수지 현황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1999년	195,176,531	8.1	165,779,093	18.1	29,397,438
2000년	249,239,664	27.7	225,095,142	35.8	24,144,522
2001년	266,661,113	7.0	243,567,050	8.2	23,094,064
2002년	325,642,067	22.1	295,302,905	21.2	30,339,162
2003년	438,472,557	34.6	413,095,616	39.9	25,376,941
2004년	593,647,174	35.4	560,811,175	35.8	32,835,999
2005년	762,326,760	28.4	660,221,766	17.7	102,104,994
2006년	969,323,615	27.2	791,793,900	19.9	177,529,715
2007년	1,218,155,477	25.7	956,261,491	20.8	261,893,986
2008년	1,428,869,189	17.3	1,131,468,686	18.3	297,400,503
2009년	1,202,047,365	-15.9	1,003,892,748	-11.3	198,154,617
2010년	1,578,444,201	31.3	1,393,909,267	38.9	184,534,934
2011년	1,899,314,102	20.3	1,741,624,120	24.9	157,689,981
2012년	2,050,109,239	7.9	1,817,344,026	4.3	232,765,213
2013년	2,210,771,856	7.8	1,941,465,999	6.8	269,305,857

2014년	2,343,222,126	6.0	1,963,105,197	1.1	380,116,929
2015년	2,280,437,122	-2.7	1,601,598,427	-18.4	678,838,694
2016년	2,134,872,317	-6.4	1,522,886,366	-4.9	611,985,951
2017년	2,279,162,136	6.8	1,789,999,733	17.5	489,162,402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Fig. 3은 한국과 중국의 수출, 수입 그리고 상품수지의 현황을 도식화 한 것이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다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수입보다 수출이 증가되고 있으며 상품수지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은 수출과 수입의 감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금융위기를 극복한 2009년부터는 수출과 수입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15년 메르스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속과 한국내 사드배치 공론화가 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인한 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Fig. 3 한·중 수출, 수입, 수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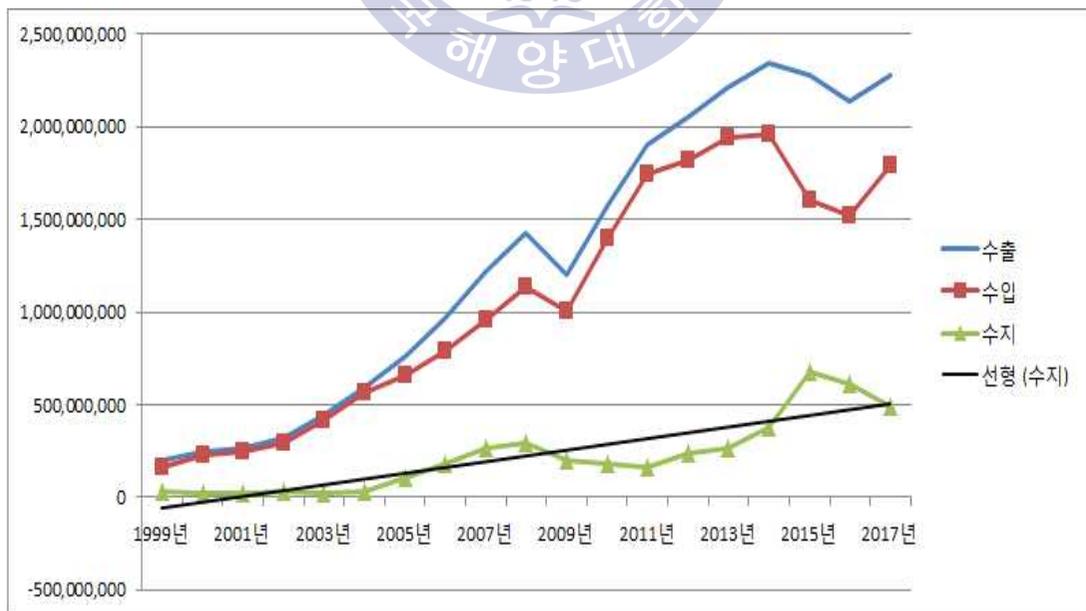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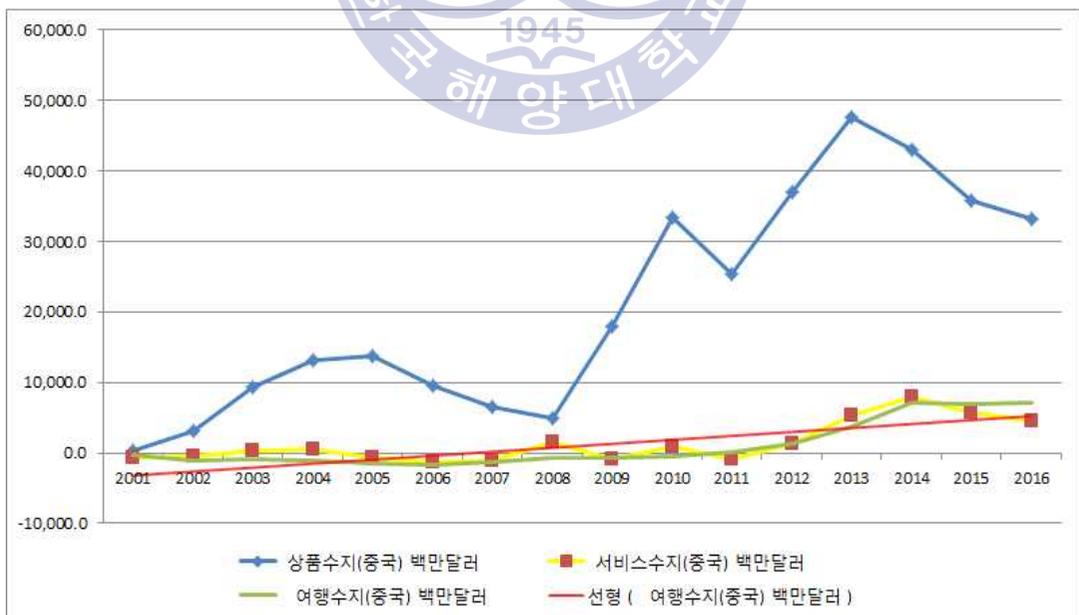


Fig. 4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여행수지의 현황을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한국 내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 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이 관광산업인 것으로 판단되어 여행수지와 서비스수지를 분리하였으며 사드배치 전후의 여행수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상품수지의 변화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1년에도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후 2012년부터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사드배치가 공론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단행된 이후에는 상품수지가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수지와 여행수지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의 위축에 따른 결과와 경기침체의 지속(배형석, 양성국 2017)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인한 결과가 상품수지, 서비스 및 여행수지에 함께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Fig. 4 한·중 무역수지 현황(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여행수지의 비교)



## 제 3 장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 3.1 선행연구

중국은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협의에 들어간 시점부터 여행비자 발급제한, 일부품목에 대한 통관기준 강화, 한국 드라마 방영제한 등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한국 여행상품 판매 등 금지를 지시하였고, 중국 현지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방당국은 특정 유통계열사 매장에 대한 표적점검을 통해 매장의 1/3 가량을 영업정지 시켰으며,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사드배치는 2016년 7월 한국정부가 공식화하면서 중국은 자국의 군사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다용(2015)은 중국에 대한 FDI가 중국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막대한 FDI를 유치하여 자본축적과 기술이전, 그리고 수출입의 확대 등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과연 이러한 FDI가 중국의 실제 무역, 수출,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국가를 상대로 분석한 결과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가는 무역과 수출, 수입 모두를 확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무역과 수출, 수입 모두와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기(1999년-2008년)에는 대중국 직접투자는 무역, 수출과 수입 모두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대중국 직접투자는 중국의 무역과 수출, 수입 모두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후기(2008년-2012년)의 분석결과 대중국 직접투자는 무역과 수출, 수입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무역지향형 투자를 해왔지만, 최근 중국에 국민소득 증대와 소비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 시장지향형 투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중국 직접투자가 중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경우 수출에 대한 영향은 둘 다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입의 경우 선진국의 대중국 FDI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당기에만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선진국의 경우 대중국 투자는 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대신 현지 생산요소 취득형 투자 즉, 현지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대선진국 또는 본국 역수입을 위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넷째, 유럽지역 국가와 아시아지역 국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유럽국가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무역과 수출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지역 국가의 대중국 투자는 수출에만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중국의 대아시아에 대한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국가들은 대중국 직접투자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역수입을 통해 중국 수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홍률(2016)은 2000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품목 중에서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정도가 큰 품목 20개를 대상으로 가격차이(price wedge)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의 TBT 규모를 약 162억 달러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중국의 상품별 WTO TBT 통보 건수와 한국의 대중국 상품별 수출금액간의 상관관계 수 값이 75.3이고, TBT 제정 건수와 TBT 크기 간에는 상관관계수 값이 46.2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교역비중이 높은 상품일수록 더 많은 TBT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이재민(2017)은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으로의 관광 제한조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중국은 2016년 7월 한미양국이 한반도내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강력한 불만과 견고한 반대”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연류행사의 중단,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외교부장의 공식항의, 중국광전총국의 한국 콘텐츠 규제 강화, 한국 상업용 복수비자 발급조건 강화, 방한 중국인 관광객 20% 감축 지침 전달, 한

국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 불허, 중국 크루즈선의 한국 내 기항 금지 내지 감축 등에 이어 한국으로의 관광제한 조치가 부과되었다.

전혜영(2017)은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한국의 관광산업의 손실규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6년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월 평균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사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17년 3월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비 40.8%가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감소의 원인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경제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 갈등 이전의 중국인 관광객 방문자수를 바탕으로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인 관광객 수 중 한국관광을 포기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추정한 결과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332만 9천명의 중국인이 한국 관광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에서의 경비 지출액은 평균 1인당 1,955.6달러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관광손실액은 총 65억 1천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관광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을 분류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연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잠재적 관광손실액이 156억 2천만 달러로 추정했다. 이로서 직·간접적인 명목 손실액은 연 18.1조원, 부가가치유발 손실액은 연 15.1조원, 취업유발손실액은 40만 2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경 등(2017)은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이 중국을 방문 중인 한국인 관광객의 관광 동기와 재방문의도의 관계에 어떠한 조절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본은 지난 10년간 중국 관광을 최소 1회 경험한 관광객을 211명을 대상으로 웹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국 관광 동기의 추진요인 중 일상탈출, 휴식 그리고 자아실현이 재방문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인요인 중 자연, 문화와 편의, 접근성이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유희와 새로운 체험을 위한 재방문 관광목적지보다는 내부 동기요인으로 바뀐 일상 속에서도 여행이라는 여가를 누리하고자 하는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 목적

지 자체의 유인요인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이 보유한 자연과 문화유산이 동종문화권인 한국인 관광객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과 근접한 지리적인 감정이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Baron and Kenny(1986)의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사드배치로 인한 반중감정이 관광동기와 재방문의도와 관계에 있어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대체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관광지 개발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지각된 위험은 안전에 민감한 현대인들에게 일상탈출·휴식이라는 내부동기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권용현·이지상(2018)은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외교적 갈등이 산업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사건연구(Event Study)와 국제산업연관표(World Input Output Table), 기업의 연혁분석(History of Company Analysis),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 단위에서의 연관성은 소속된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기업을 통한 대중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업의 가치를 보다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에 생산 및 판매 법인이 존재하는 기업들이나 합작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 외교적 갈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개별기업의 고유한 위험이 높다는 것이 외인성 충격에 의한 주가 하락의 시기에 기업의 가치를 보다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웹 스크래핑 기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사드에 연관된 뉴스에 대한 높은 노출도가 기업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교적 갈등이라는 외인적 충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산업 단위보다는 기업 단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으며, 특히 사건 이후 미디어에서의 노출도에 따라 실질적인 충격 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배형석·양성국(2017)은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드배치가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항공 산업을 항공기제조

업과 항공운송서비스업으로 분류한 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사드배치 이슈 발생 전·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 소득, 부가가치, 간접세 승수를 산출하여 다른 산업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기제조업과 항공운송서비스업 모두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소득, 부가가치, 간접세의 창출효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항공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를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2014년과 2016년 항공산업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생산, 소득, 부가가치, 순간접세 승수를 계산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의 위축에 기인한 결과로 보이며 사드배치 이슈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홍률(2017)은 사드분쟁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경제재제 조치 중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수입규제 조치, 통관지연,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을 강화시켰는데, 이에 대해 한국의 기업인들이 얼마나 보호무역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 수출입 기업인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호무역 체감여부에 대해 집단간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감여부에 따라 기업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그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인들의 63.4%가 보호무역을 체감하고 있었고,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통관지연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교차분석 결과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차이가 있을 정도로 받아들이면서도 개별적인 통관지연, 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조치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중간의 사드분쟁으로 인해 무역기술장벽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배형석·양성국(2017)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항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항공기제조업과 항공운송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항공기제조업과 항공운송서비스업 모두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소득, 부가가치, 간접세의 창출효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항공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를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2015년을 기준으로 2014년과 2016년 항공산업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생산, 소득, 부가가치, 순간접세 승수를 계산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외국·내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된 시기이므로 사드배치 이슈보다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유현정·주재우(2017)는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총 4단계로서 현재 중국이 취하는 조치의 단계는 3단계의 일부를 취하고 있다. 1단계는 혐오한 감정 조성을 통한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조장하고 한국산 소비재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와 관련된 산업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2012년 중·일간 영토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인들의 온라인 상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오프라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것과 유사한 사례다. 2단계는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합법적 절차 및 규정 준수를 강조하여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방법이다. 화장품 위생허가 내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수속 기간 지연 및 사용불가 원료성분을 추가한다든지, 중금속 함유량 규제를 강화하는 등 더욱 엄격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을 시행하여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위축시켰다. 3단계는 중국 기업의 한류관련 계약 해지 및 연기하는 방법으로, 중국정부가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고 중국 개인 및 기업의 결정을 유도하여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경우이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하여 한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여 2016년 8월에는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이 3,600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4단계는 중앙정부가 전면에서 등장하여 공식적으로 한국의 특정 상품 수출입을 제재한다. 위 단계별 제재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말하자면 1단계에 대한 대응 조치로는 중국 정부가 여론몰이를 통해 반한 감정을 조성하는 것을 한국국민 및 중국국민에게 인지시

키는 것이다.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왜곡된 반한 정보를 교정하는 등 이성적이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2단계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우선 정부가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 내 한국기업과 정부조직 혹은 기업조직, 민관 합동조직의 TF팀을 구성하여 정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및 불공정 무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기업들도 동종협회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통상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집중 조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3단계의 대응책은 한·중 양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라는 점과 3단계 조치 실행에 따라 중국 기업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집중 부각시키는 것이다. 과거 다른 국가에 대한 경제 제한 조치로 인해 중국 기업 역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어 설득해야한다. 4단계의 대응책으로 수입규제가 실시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WTO 등 국제경제체제의 관련 분쟁해결 조정 기관에 제소하여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 단계별 분석과 더불어 과거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정치적·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 사례를 정리하였다. 달라이라마 면담에 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프랑스의 에어버스 150대 구매계약을 연기하거나 영국에 대한 투자 중지로 압박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 영토분쟁에 대한 이슈는 일본으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거나 중국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필리핀은 관광객을 송출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중국 내 베트남 기업이 입찰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드갈등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의 손실규모를 추정한 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2017.09.14.)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관광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외래 관광객 감소율이 46%로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연간 관광 수입 감소율은 5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광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왕샤오커(2017)는 사드문제와 한중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원인은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강한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실망과 중국과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피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유지에 이익이 되어 사드배치를 결정하였다고 인식하고 중국은 사드가 한국안보의 필수품이 아니며 중국의 전략적 위협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상반된 인식차이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이 중미관계에서 미국을 선택했으며 미국이 동아시아동맹국과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포문을 열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한중 양국이 중미경쟁과 한미동맹 두개의 구조적 제약에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필연적 모순을 나타내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북한 핵실험 등 원인으로 사드문제는 정책적 측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한중 양국은 양국관계를 재정비하고 견제의 모순과 갈등을 줄이고 공동이익 기반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송세관(2017)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마찰을 빚고 있는 한중관계를 종합분석하고 전망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의 현주소, 북한의 핵 위협,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경제보복 실태로 범주화한 후 중국의 인식과 정책 노선을 분석하여 우리의 전략적 고민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논란의 중심에는 북한 핵 고도화와 동아시아에서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향후에도 사드배치 반대, 자국민의 한국여행 제한, 그리고 경제보복을 일정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사고와 실용적인 대중국 외교정책 대안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미국의 강한 압박 그리고 중국과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어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유지에 이익이 되어 사드배치를 결정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안보의 필수품이 아니며 중국의 전략적 위협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보았다. 또한 항공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2015년 이후 경제적 침체가 이루어진 원인을 사드배치로 인한 영향보다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외국·내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된 결과가 더 큰 원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상반된 인식차이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보복조치로는 연류행사의 중단, 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외교부장의 공식항의, 중국광전총국의 한국 콘텐츠 규제 강화, 한국 상업용 복수비자 발급조건 강화, 방한 중국인 관광객 20% 감축 지침 전달, 한국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 불허, 중국 크루즈선의 한국 내 기항 금지 내지 감축 등에 이어 한국으로의 관광제한 조치 등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인접한 지리적 조건과 비슷한 전통문화 그리고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우호적인 정치관계 형성과 함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해 왔으며 관광교류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까지 확보하였고 한국은 중국에 비해 약소국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강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과 협의하여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중국은 자국의 군사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제재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중국보다 한국의 피해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교류 현황으로는 사드문제로 인하여 교역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관광부문의 피해는 양국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사드배치로 인한 영향은 국제무역수지뿐만 아니라 한중 상품수지 및 여행수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3.2 가설설정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드배치가 국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사드배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중국과의 상품수지와 여행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사드배치는 국제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가설1-1: 사드배치는 상품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가설1-2: 사드배치는 여행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가설 2: 사드배치는 중국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가설2-1: 사드배치는 상품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가설2-2: 사드배치는 여행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 제 4 장 연구설계

### 4.1 연구모형

이상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다용(2015), 김지은·이형직(2017)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① 2000년~2014년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무역수지 회귀식을 산출한다.
- ② ①에서 산출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사드배치 사건기간에 해당하는 2015년~2017년의 연도별 무역수지 추정치를 산출한다.
- ③ 사드배치 사건기간에 해당하는 2015년~2017년의 무역수지 실제치에서 ②의 추정치를 차감하여 차이를 계산한다. 추정치보다 실제치가 낮을수록 사드배치가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파악할 수 있다.

식(1)은 무역수지를 종속변수로 하고 환율, 임금, 외국인 직접투자액, 국내총생산량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이다.

$$TB_{1,2} = \alpha_0 + \alpha_1 EXR + \alpha_2 PAY + \alpha_3 FDI + \alpha_4 GDP + \epsilon \quad \text{식(1)}$$

식(2)는 식(1)의 추정 회귀식이다.

$$\widehat{NTB}_{1,2} = \widehat{\alpha}_0 + \widehat{\alpha}_1 EXR + \widehat{\alpha}_2 PAY + \widehat{\alpha}_3 FDI + \widehat{\alpha}_4 GDP \quad \text{식(2)}$$

식(3)은 무역수지의 실제치에서 식(2)의 추정치를 차감한 값이다.

$$DIFF_{1,2} = TB_{1,2} - [\widehat{\alpha}_0 + \widehat{\alpha}_1 EXR + \widehat{\alpha}_2 PAY + \widehat{\alpha}_3 FDI + \widehat{\alpha}_4 GDP] \quad \text{식(3)}$$

변수정의:

TB1 = 국제무역수지(상품수지+여행수지), 상품수지, 여행수지

TB2 =한중 무역수지(상품수지+여행수지), 한중 상품수지, 한중 여행수지

DIFF = 무역수지의 차이(무역수지의 실제치 - 추정치)

EXR= 위안/원, 중국 위안(명목환율)

PAY= 5인 이상 사업장 전 직종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자연로그

FDI=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의 자연로그

GDP= 국내 총 생산량의 자연로그

$\epsilon$  = 잔차

모형에 포함된 변수를 보면 TB는 무역수지로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합한 금액이다.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는 선행연구(김지은, 이형직 2017)와 동일하게 KOSIS에서 공시하는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DIFF(차이)는 무역수지의 실제치에서 추정치를 차감한 차이이다.

EXR(환율)은 중국의 위안으로 측정을 하였다. Saang Joon Baak(2007)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위안화 환율변동성이 한국의 수출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KOSIS에서 제공하는 명목환율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PAY(임금)는 5인 이상 사업장 전 직종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의미한다.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을 말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란 지속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서, 투자기업의 관리에 대하여 투자자의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이 존재하게 되므로 통상 투표권의 10% 이상을 취득함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금융체계의 자유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해외 직접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제무역 또한 빠르게 증대되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보완관계가 부각되었다. R. Lipsey M.Y. Weiss(1981)과 유재원(1981)의 연구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증

가되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GDP(국내 총생산량)는 KOSIS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원화와 달러로 표시한 금액을 함께 제시하며 통계의 자료에는 원화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심승진(2012)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소득 증대가 무역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드배치가 2015년 공론화되고 2016년 사드배치가 확정되면서 중국은 빠르게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사드배치로 인한 영향을 분기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2 표본선정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2000년~2017년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OS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외교부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연구 및 보도 자료와 웹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Table 7은 국제무역수지 및 한·중 무역수지에서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상품수지는 상품수출에서 상품수입을 차감한 값이고 여행수지는 여행수입에서 여행지급을 차감한 값이다. 그리고 국제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합한 금액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환율, 임금,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국내총생산량도 연간자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한·중 무역수지는 2017년 자료의 미공시로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먼저 상품수지에서 2001년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08년의 상품수지가 12,197.5백만달러로 낮은 기록을 보였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이후 회복하였으나 2011년 하락한 이후 2012년 이후부터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약 67.4%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사드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2016년 상품수지는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여행수지에서 여행수지의 (-)표시는 여행 입국자의 사용금액보다 여행 출국자의 사용금액이 더 많음을 나타낸다. 여행수지는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7년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합한 무역수지에서도 2008년에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2011년 하락한 이후부터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2016년과 2017년에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 무역수지에서 상품수지를 보면 2000년~2002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3년부터는 흑자의 상품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는 크게 상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부터 하락하여 주춤하더니 2012년부터 다시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 다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수지에서도 2010년까지 마이너스 기록을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여행수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5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여행객 감소와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인한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Table 7 국제 무역수지 및 한중 무역수지의 연간 현황

연도	국제 무역수지			한중 무역수지		
	상품수지 (백만달러)	여행수지 (백만달러)	무역수지 (백만달러)	상품수지 (백만달러)	여행수지 (백만달러)	무역수지 (백만달러)
2000	15,630.9	-297.6	15,333.3	-13,566.0	-701.1	-14,266.6
2001	9,838.7	-1,233.0	8,605.7	-22,568.0	-375.0	-22,943.0
2002	14,904.5	-4,528.8	10,375.7	-18,020.4	-1,013.1	-19,033.5
2003	22,476.9	-4,744.6	17,732.3	33,689.2	-842.0	32,847.2
2004	39,277.5	-6,281.2	32,996.3	44,895.6	-1,015.7	43,879.9
2005	32,312.5	-9,600.3	22,712.2	130,129.0	-1,553.7	128,575.3
2006	25,174.1	-13,083.7	12,090.4	215,686.0	-1,737.2	213,948.8

2007	32,837.6	-15,840.5	16,997.1	311,715.0	-1,361.4	310,353.6
2008	12,197.5	-9,305.7	2,891.8	359,886.0	-652.7	359,233.3
2009	47,814.0	-5,231.4	42,582.6	243,546.0	-618.5	242,927.5
2010	47,915.4	-8,437.8	39,477.6	246,426.0	-409.6	246,016.4
2011	29,089.9	-7,444.8	21,645.1	228,701.0	92.8	228,793.8
2012	49,406.0	-7,216.4	42,189.6	311,570.0	1,229.0	312,799.0
2013	82,781.0	-7,018.8	75,762.2	359,981.0	3,679.6	363,660.6
2014	88,885.4	-5,356.3	83,529.1	435,042.0	7,214.2	442,256.2
2015	122,269.2	-10,055.6	112,213.6	576,191.0	6,902.4	583,093.4
2016	118,895.4	-9,911.6	108,983.8	494,077.0	7,211.2	501,288.2
2017	119,888.7	-17,172.9	102,715.8	-	-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Table 8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의 연간 자료를 제시한다. 환율은 KOSIS에서 고시하는 명목환율이다. 2010년을 100위안으로 보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상승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전 직종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임금총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을 보면 2009년까지는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량은 환율의 차이로 인해 원화와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제시한다. 국내총생산량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2008년과 2009년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Table 8** 통제변수들의 연간 현황

연도	환율 (위안)	임금 (원)	외국인직접투자금액 (천불)	GDP (십억원)	GDP (억달러)
2000	93.508	1,667,542	3,816,329	635,184.6	5,618
2001	98.694	1,752,382	2,822,041	635,184.6	5,331
2002	98.259	1,947,774	2,273,833	761,938.9	6,089
2003	92.207	2,127,401	1,617,647	810,915.3	6,804
2004	88.007	2,254,889	3,199,072	876,033.1	7,653
2005	87.854	2,404,385	2,891,516	919,797.3	8,980
2006	89.874	2,541,886	2,811,860	966,054.6	10,110
2007	91.135	2,683,203	2,628,906	1,043,257.8	11,227
2008	97.165	2,568,838	2,927,968	1,104,492.2	10,017
2009	101.986	2,636,260	2,871,035	1,151,707.8	9,023
2010	100	2,816,188	3,268,264	1,265,308.0	10,943
2011	100.128	2,843,545	3,418,272	1,332,681.0	12,027
2012	105.116	2,995,471	4,071,476	1,377,456.7	12,224
2013	110.679	3,110,992	3,637,086	1,429,445.4	13,054
2014	114.096	3,189,995	4,750,021	1,486,079.3	14,110
2015	124.955	3,300,091	5,227,570	1,564,123.9	13,824
2016	116.852	3,424,726	5,324,826	1,641,786.0	14,147
2017	113.551	3,518,155	5,735,782	1,730,398.5	15,302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다음 **Table 9**는 사드의 영향을 분기별로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수지에서는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제시하고, 한·중 무역수지에서는 여행수지를 제시

하지 않아 여행수지가 서비스수지에 포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분기별 자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한·중 무역수지는 2017년 분기별 자료의 미공시로 인해 2017년 1/4분기 자료까지만 제시한다.

**Table 9** 국제무역수지 및 한중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분기별 현황

시기(분기)	국제 무역수지		한중 무역수지	
	상품수지 (백만달러)	여행수지 (백만달러)	상품수지 (백만달러)	서비스수지 (백만달러)
2014 1/4	17595.3	-1782.3	43,673	-54,166
2014 2/4	25175.7	-1565.0	104,949	-42,300
2014 3/4	20977.4	-1466.8	139,437	-62,934
2014 4/4	25137.0	-542.2	146,982	-54,343
2015 1/4	24516.1	-1933.0	118,684	-48,857
2015 2/4	33667.7	-2078.2	137,524	-56,107
2015 3/4	31319.2	-3365.9	159,666	-62,832
2015 4/4	32766.2	-2678.5	160,317	-50,524
2016 1/4	30209.1	-1983.1	105,653	-54,323
2016 2/4	33174.8	-1717.4	126,623	-54,696
2016 3/4	28184.0	-3945.6	140,488	-66,827
2016 4/4	27327.5	-2265.5	121,313	-68,315
2017 1/4	27307.0	-3743.4	82,279	-60,674
2017 2/4	29561.1	-3992.5	-	-
2017 3/4	34750.3	-4513.2	-	-
2017 4/4	28270.3	-4923.8	-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Fig. 5는 국제상품수지와 국제여행수지의 분기별 현황을 도식화 한 것이다. 국제상품수지를 보면 2014년 3/4분기에는 하락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5년 2/4분기부터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2016년 2/4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2017년 2/4분기에 상승하였으며 2017년 4/4분기에 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여행수지를 보면 하락하는 현상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국제상품수지와 여행수지의 분기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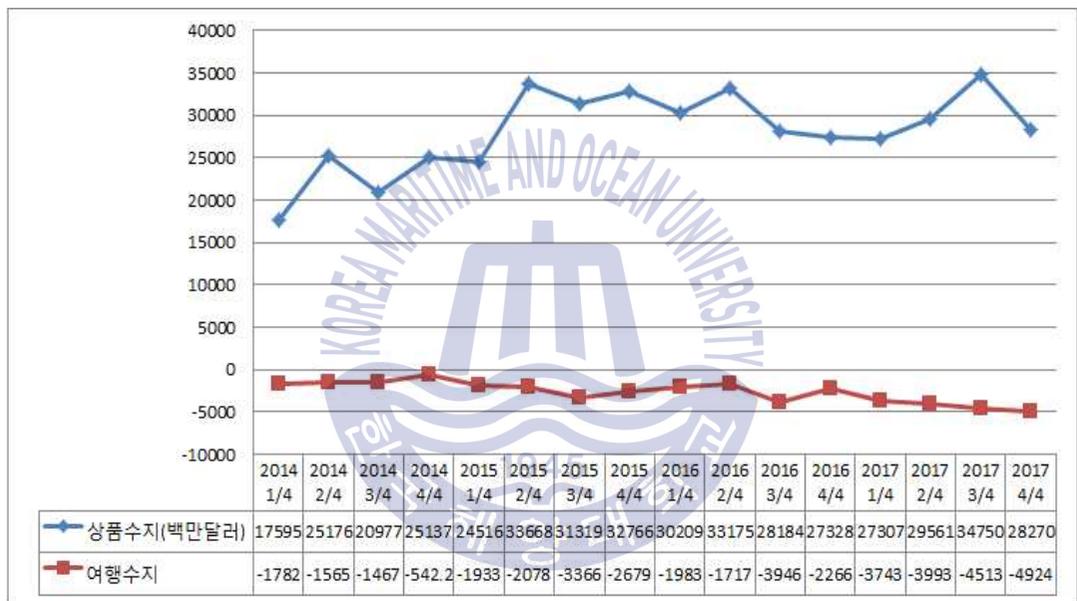


Fig. 6은 2014년부터 2017년 국제상품수지의 분기별 현황을 제시한다. 2014년 4/4분기까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미약하지만 약간 상승하였으나 2015년 2/4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6년 2/4분기 이후에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결과가 반영된 듯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17년 3/4분기에 약간 상승하였으나 4/4분기에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국제상품수지의 분기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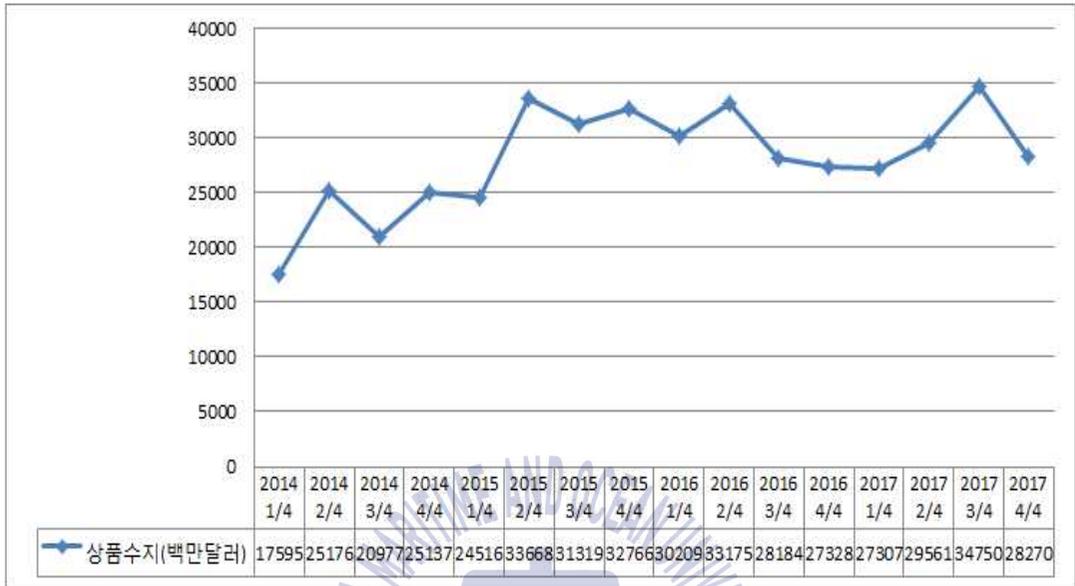


Fig. 7은 2014년부터 2017년 국제 여행수지의 분기별 현황을 제시한다. Fig. 5는 세로축이 5,000단위로 표시되어 여행수지의 자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서 Fig. 6에 여행수지를 1,000단위로 세분화하여 여행수지의 자세한 현황을 제시한다. 국제 여행수지는 2014년 4/4분기를 기점으로 급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5년 3/4분기 이후 주춤하더니 2016년 2/4분기 이후 다시 급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4/4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6년 중국이 상용비자발급 조건을 강화하고 저가 관광상품 규제 등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Fig. 7 국제여행수지의 분기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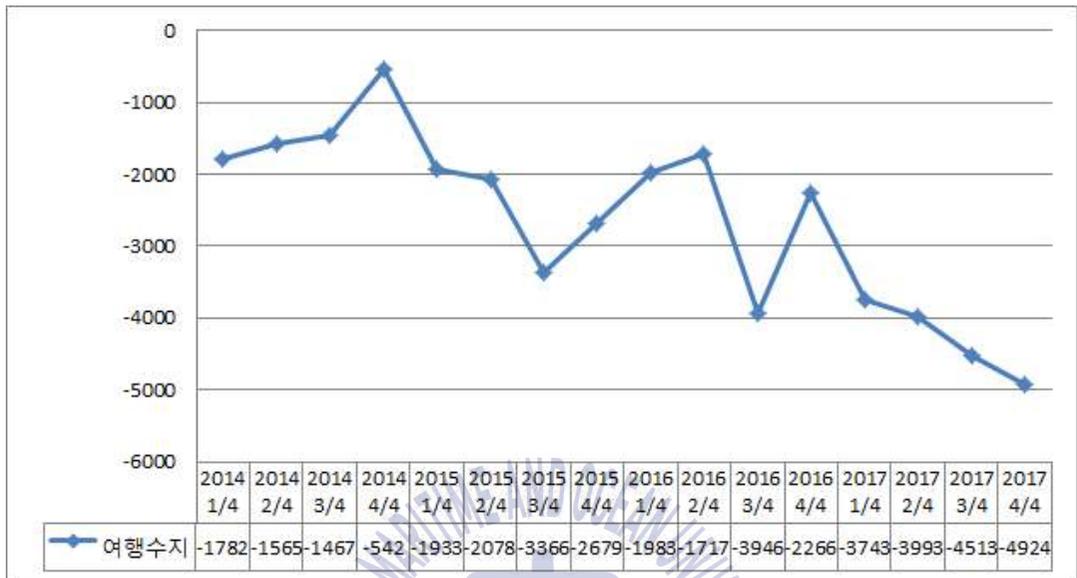


Fig. 8은 한중 상품수지와 한중 서비스수지의 분기별 현황을 도식화 한 것이다. 한중 여행수지의 분기별 자료 미공시로 인해 여행수지가 포함된 서비스수지의 분기별 현황을 제시한다.

한중 상품수지를 보면 2015년 1/4분기와 2016년 1/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3/4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1/4분기까지도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여행수지가 포함된 서비스수지를 보면 2014년 3/4분기와 2015년 3/4분기, 그리고 2016년 3/4분기, 4/4분기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한중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분기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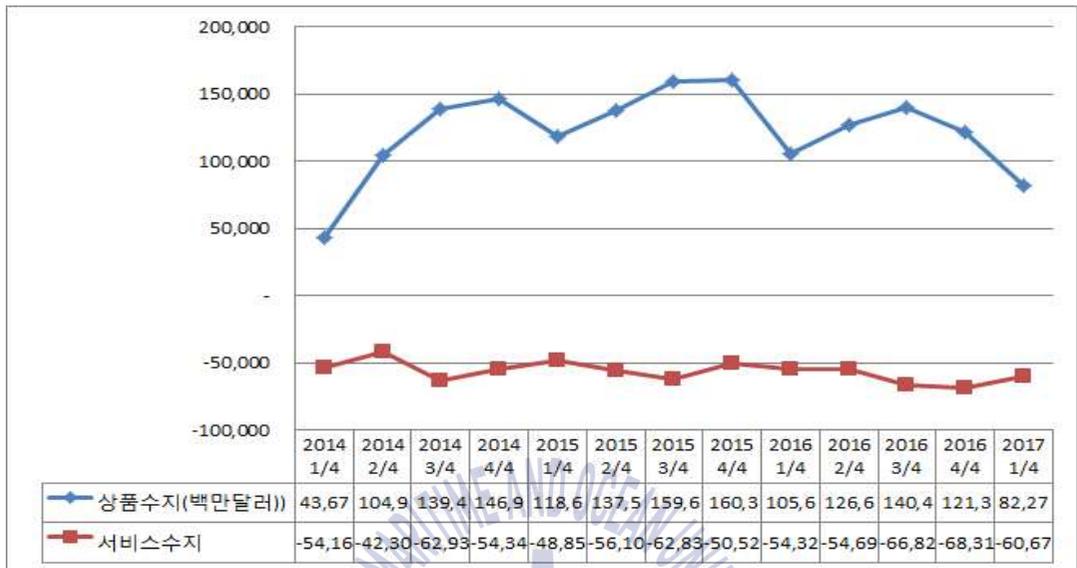


Fig. 9는 한중 상품수지의 분기별 현황을 제시한다. 2015년 1/4분기와 2016년 1/4분기에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1/4분기에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한중 상품수지의 분기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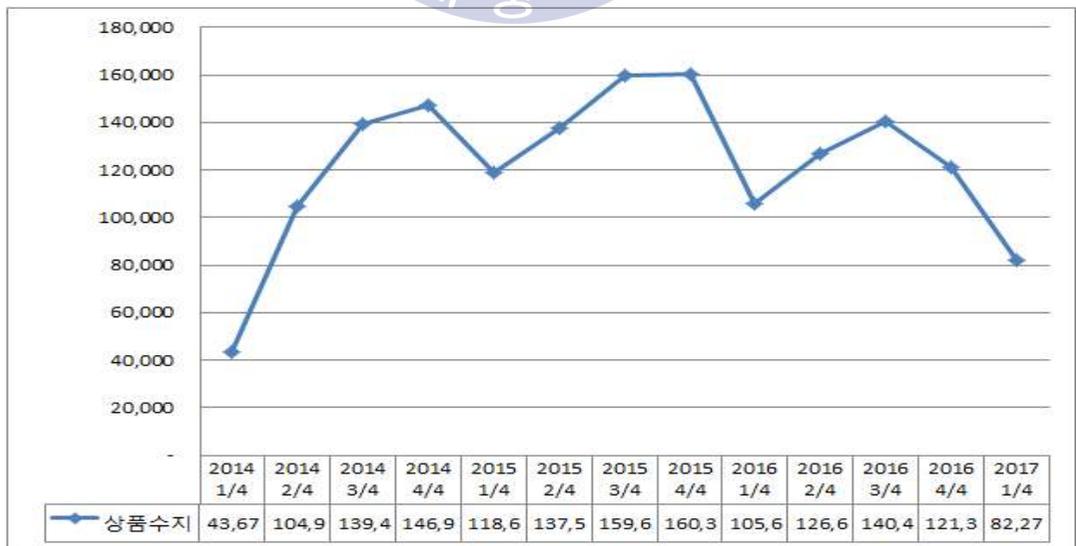


Fig. 10은 2014년부터 2017년 1/4분기까지 한중 서비스수지의 분기별 현황을 제시한다. Fig. 8은 세로축이 50,000단위이나 Fig. 10은 서비스수지를 10,000단위로 세분화하여 서비스수지의 자세한 현황을 제시한다. 한·중 서비스수지는 2014년 2/4분기를 기점으로 급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5년 3/4분기, 그리고 2016년 2/4분기 이후 다시 급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4/4분기를 기점으로 2017년 1/4분기에는 미미한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0 한중 서비스수지의 분기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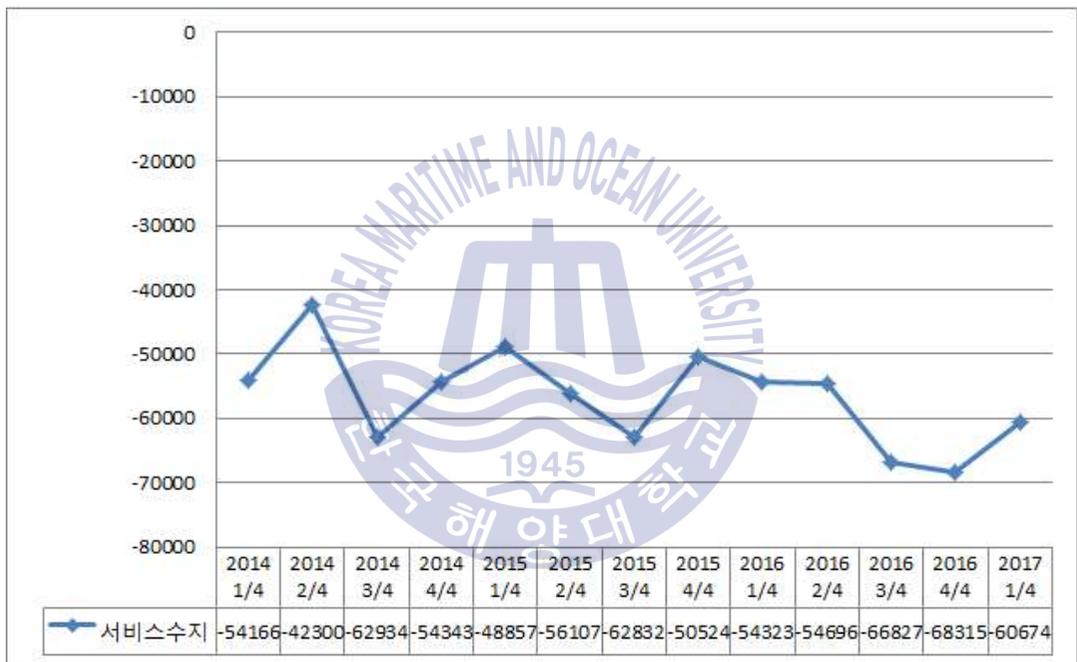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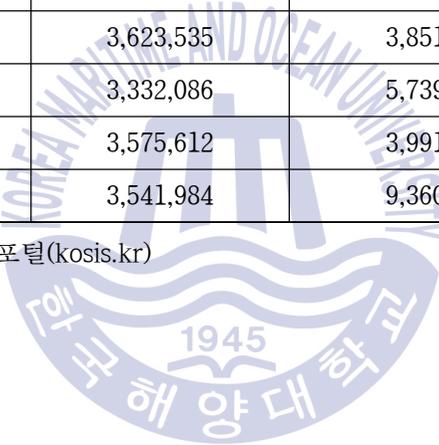
Table 10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의 분기별 자료를 제시한다.

Table 10 통제변수들의 분기별 현황

시기	환율 (위안)	임금 (원)	외국인직접투자금액 (천불)	GDP (십억원)
2014. 1/4	113	3,256,321	5,058,828	353,529
2014. 2/4	111	3,025,785	5,272,619	370,021

2014. 3/4	113	3,226,995	4,483,974	376,491
2014. 4/4	119	3,252,495	4,184,664	386,038
2015. 1/4	125	3,356,165	3,554,801	369,947
2015. 2/4	126	3,128,487	5,316,022	389,174
2015. 3/4	125	3,350,168	4,400,700	398,476
2015. 4/4	124	3,364,661	7,638,758	406,526
2016. 1/4	121	3,534,203	4,241,377	387,353
2016. 2/4	118	3,220,531	6,313,254	409,959
2016. 3/4	114	3,465,763	4,494,975	415,025
2016. 4/4	114	3,480,465	6,249,699	425,084
2017. 1/4	114	3,623,535	3,851,485	406,319
2017. 2/4	113	3,332,086	5,739,902	430,577
2017. 3/4	113	3,575,612	3,991,110	445,774
2017. 4/4	113	3,541,984	9,360,631	447,728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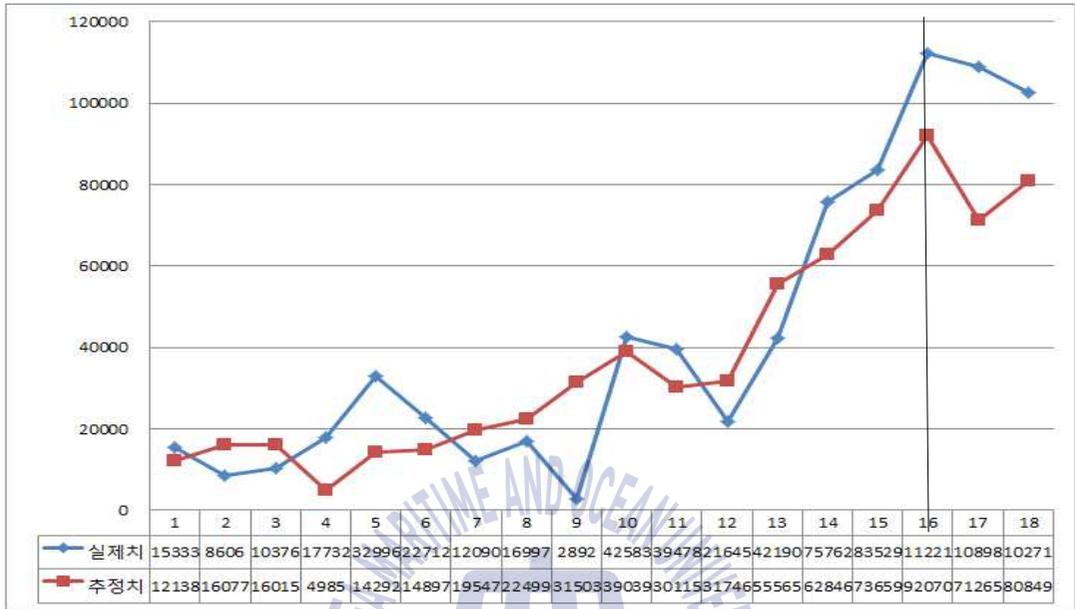
### 5.1 실증분석 결과

#### 5.1.1 국제무역수지 현황

##### 5.1.1.1 국제무역수지의 현황

Fig. 11은 연도별 국제무역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국제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여행수지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Fig. 11을 보면 2008년에 가장 낮은 무역수지를 기록하여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후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실제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정치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2015년 사드배치를 공론화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견제로 인한 결과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국·외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된 결과가 국제무역수지에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사드배치는 국제무역수지를 악화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조장하고 한국산 소비재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수요를 급감시켜 무역수지가 급격히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11 연도별 국제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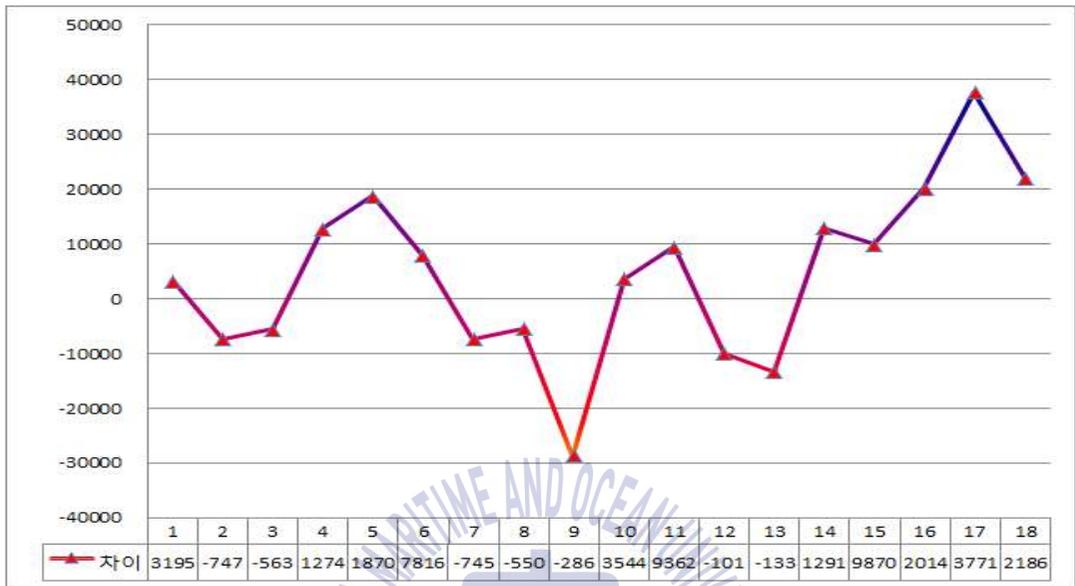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12는 연도별 국제 무역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국제 무역수지의 차이는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임금, 외국인 직접 투자액, 국내총생산량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국제무역 추정치를 구하여 실제치에서 추정치를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Fig. 12를 보면 2008년 큰 폭의 하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효과가 반영되어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과 2012년 이후 급격한 상승추세에서 2015년 이후 급격한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외교적 갈등과 경기침체의 원인이 국제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 연도별 국제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13은 국제무역수지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기별 실제값과 기댓값을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무역수지의 실제값과 추정치의 차이를 보면 2016년 1/4분기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무역수지의 실제치는 2016년 2/4분기 이후 크게 하락하였으며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드배치의 결정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의 결과가 분기별 무역수지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 분기별 국제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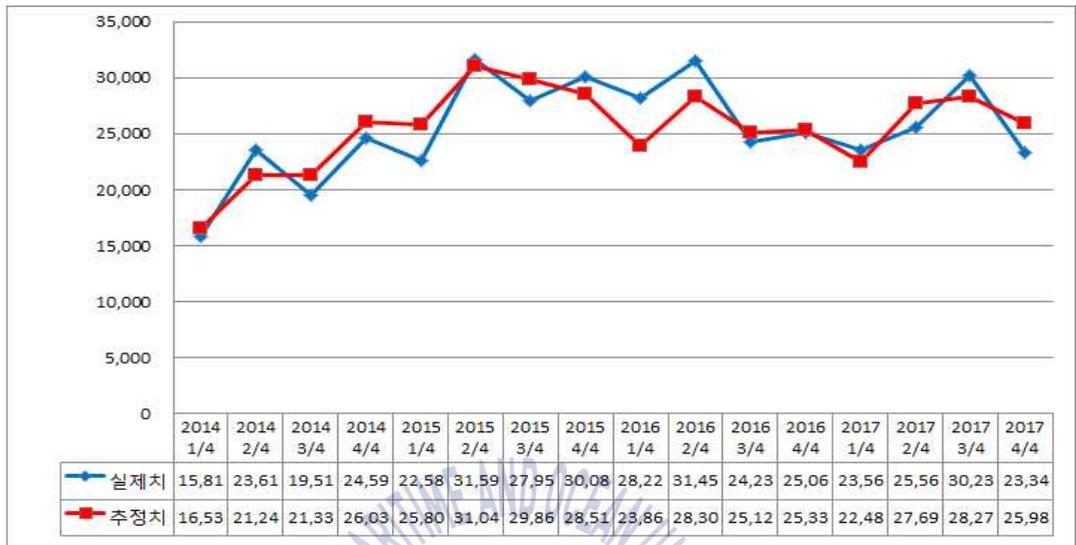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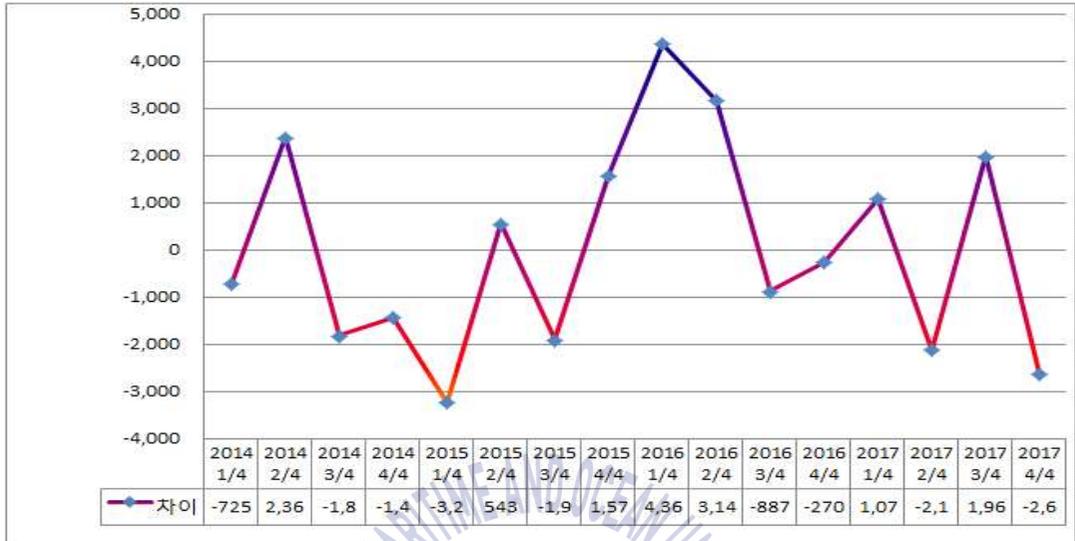


Fig. 14는 분기별 국제무역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제시한다. Fig. 13은 축의 단위가 5,000단위이나 Fig. 14는 축의 단위를 1,000단위로 세분화하여 분기별 국제 무역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전체적인 효과를 보면 분기별 차이의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1/4 분기에 가장 낮은 무역수지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1/4분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수지에서 여행수지의 폭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상품수지와 여행수지의 합으로 도출한 무역수지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후 사드배치의 결정이 완료되는 2016년 1/4분기를 기점으로 2016년 2/4분기와 3/4 분기에 큰 폭의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한국인 비즈니스 비자발급 절차 강화,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 등,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14 분기별 국제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5.1.1.2 국제상품수지 현황

Fig. 15는 연도별 국제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국제상품수지는 2008년에 실제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후 2009년부터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하락하고 2016년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사드배치가 국제상품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이 공론화되면서 주변 국가들의 외교적 갈등이 함께 혼재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15 연도별 국제상품수지의 실제치과 추정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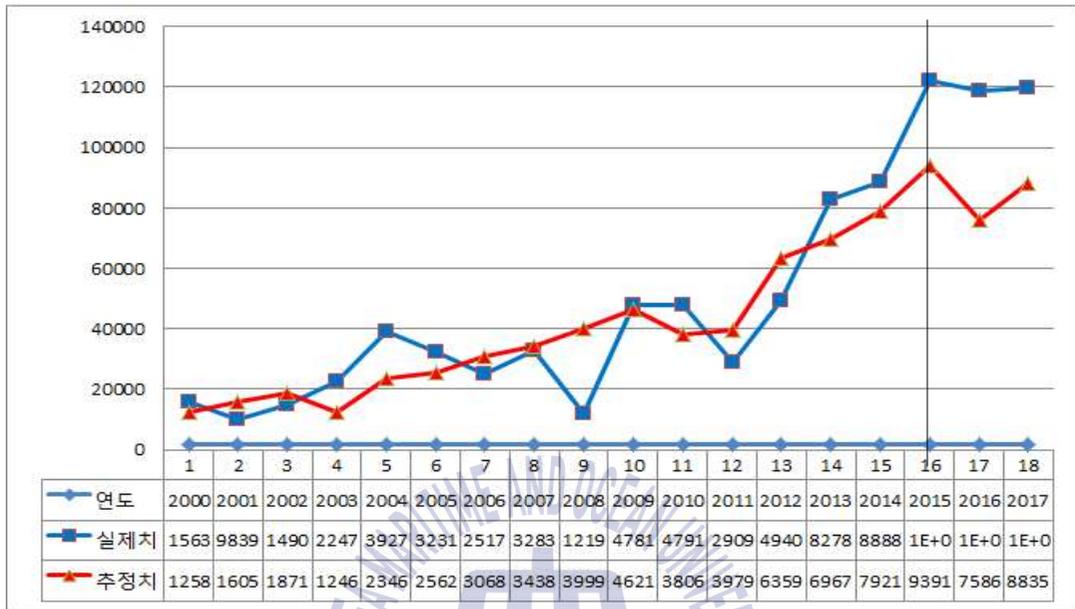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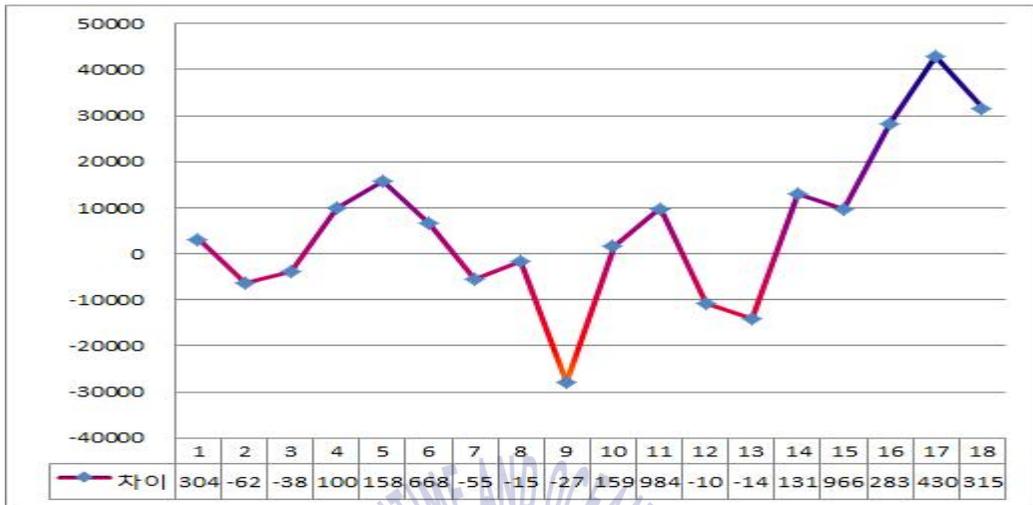


Fig. 16은 연도별 국제상품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제시한다. 2008년에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후 2011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6 연도별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17은 분기별 국제상품수지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2014년 4/4분기와 2015년 1/4분기, 그리고 2016년 1/4분기에 실제치와 추정치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미국방부 부장관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승민 의원의 사드 조기 도입을 주장한 시기와의 일치하는 시점이다. 2016년 1/4분기에는 미국방부의 한국 사드배치를 권고하는 시점으로 사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한국정부의 사드배치를 공식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시점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영향이 상품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7 분기별 국제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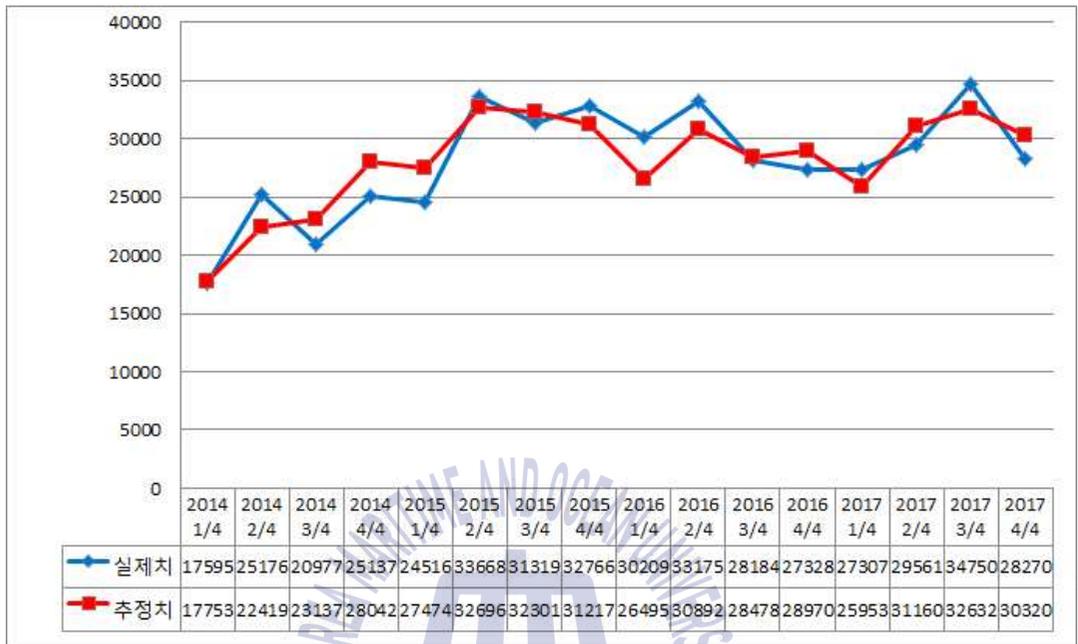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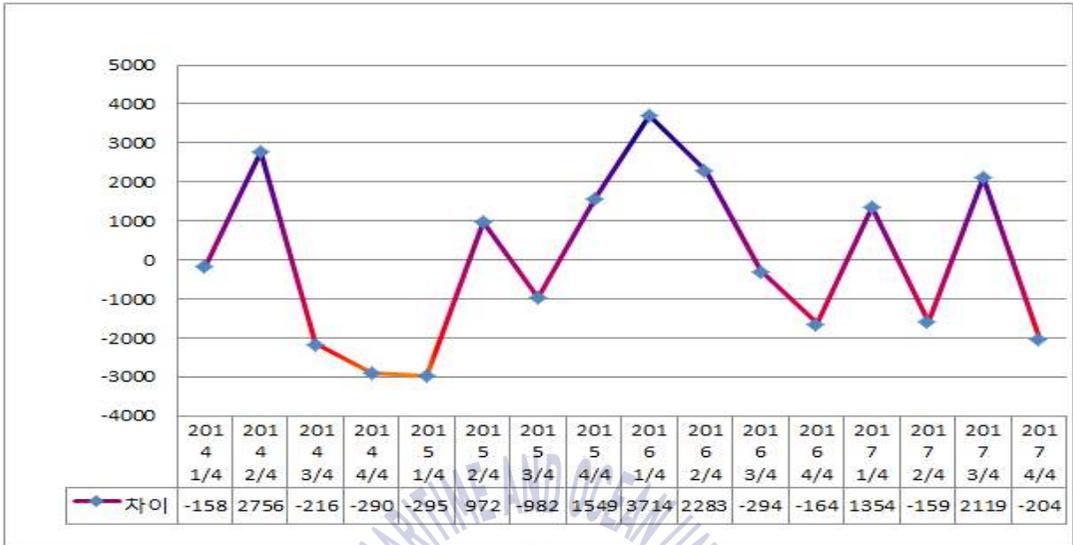


Fig. 18은 분기별 국제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제시한다. 2014년 4/4분기와 2015년 1/4분기에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후 2016년 1/4분기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드배치가 공론화 되면서 외교적 갈등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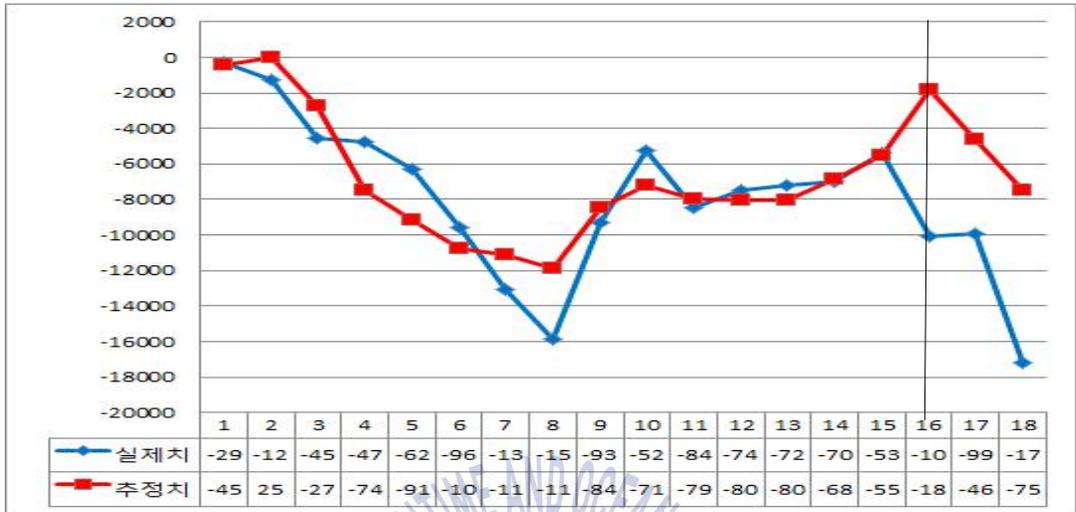
Fig. 18 분기별 국제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5.1.1.3 국제여행수지 현황

Fig. 19은 연도별 국제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국제여행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는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2014년도에는 실제치와 추정치가 크게 차이가 났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실제치와 추정치의 폭이 거의 동일하게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드배치가 여행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이 공론화되면서 주변 국가들의 외교적 갈등이 함께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강한 불만과 함께 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함으로써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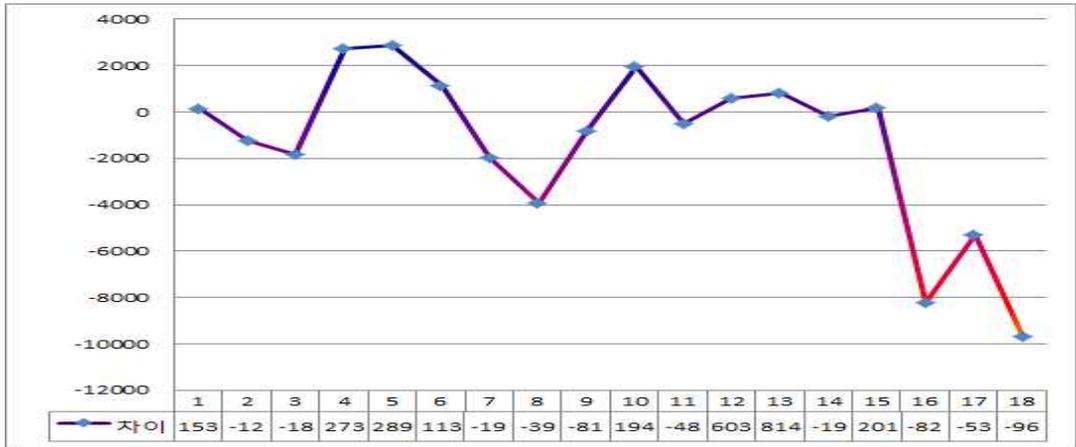
Fig. 19 연도별 국제여행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20는 연도별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나타낸다.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한 결과가 반영되어 여행수지에도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4년을 기점으로 2015년부터는 여행수지가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드배치에 대한 공론화와 중국의 한국여행 전면금지 등 사드 경제보복조치에 따른 결과가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20 연도별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21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기별 국제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2014년 4/4분기를 보면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2015년 3/4분기와 2016년 1/4분기, 2/4분기, 그리고 4/4분기에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여행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6년 상용 비자 발급 조건 강화, 저가 관광상품 규제, 한국행 단체 관광객 20% 감축 지시 등의 결과가 여행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1 분기별 국제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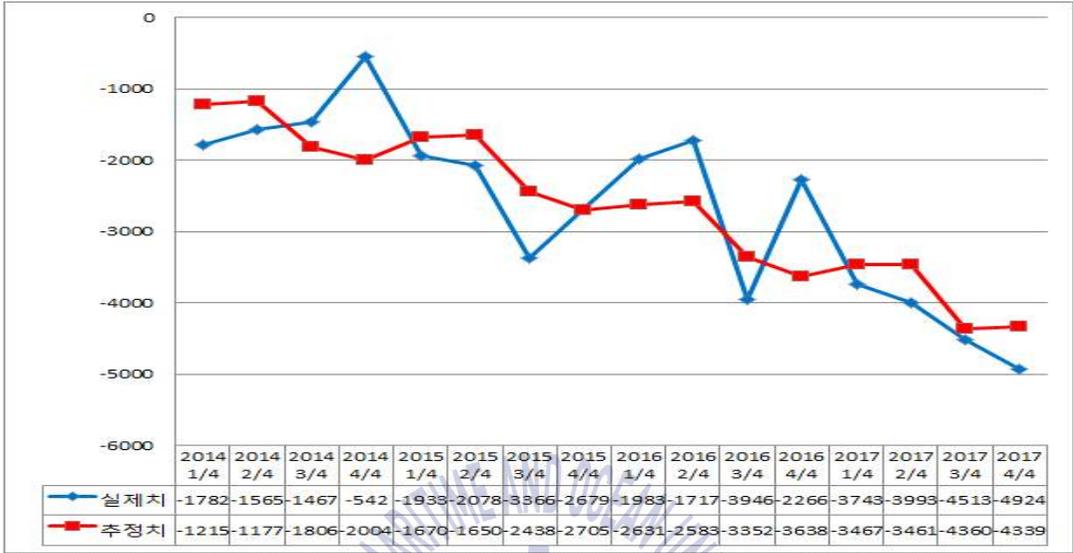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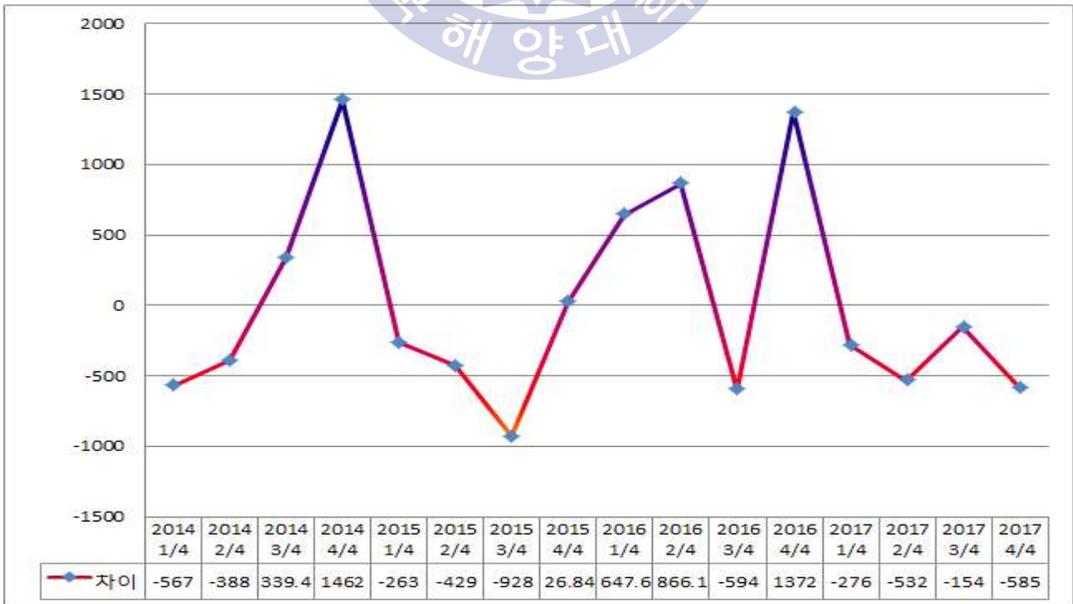


Fig. 22는 분기별 국제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제시한다. 2014년 4/4분기와 2015년 3/4분기, 2016년 3/4분기와 4/4분기에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2 분기별 국제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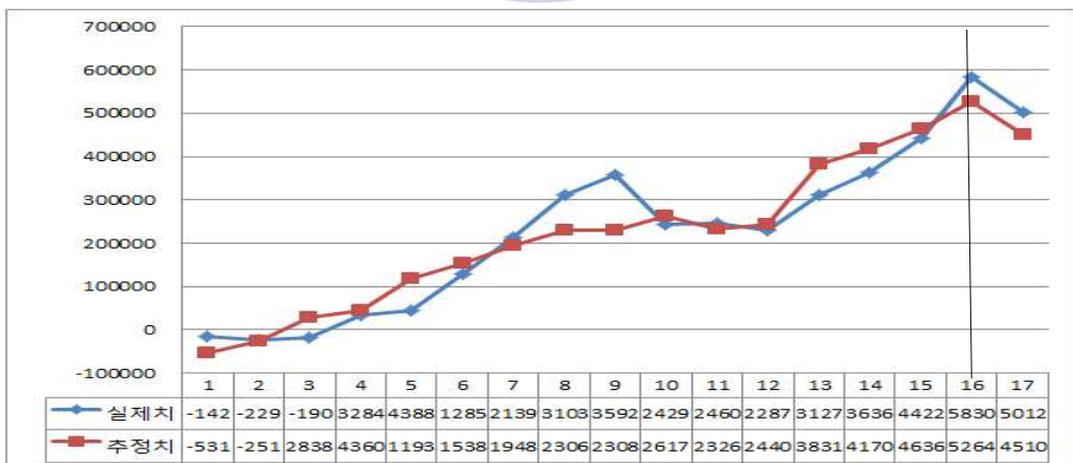


## 5.1.2 한중 무역수지 현황

### 5.1.2.1 한중 무역수지 현황

Fig. 23는 연도별 한중 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2017년의 실제치를 제시하지 않아 2016년까지만 제시한다. 한중 무역수지는 한중 상품수지와 한중 여행수지의 합이다. 무역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는 2007년과 2008년에 크게 나타났으며 2012년에도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2015년부터는 실제치와 추정치가 함께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드배치는 중국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2015년 사드배치를 공론화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조장하고 한국산 소비재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수요를 급감시켜 무역수지가 급격히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 상용 비자 발급 조건 강화, 한류 제한령 지시,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등 한국의 사드배치를 국제적 위상으로 압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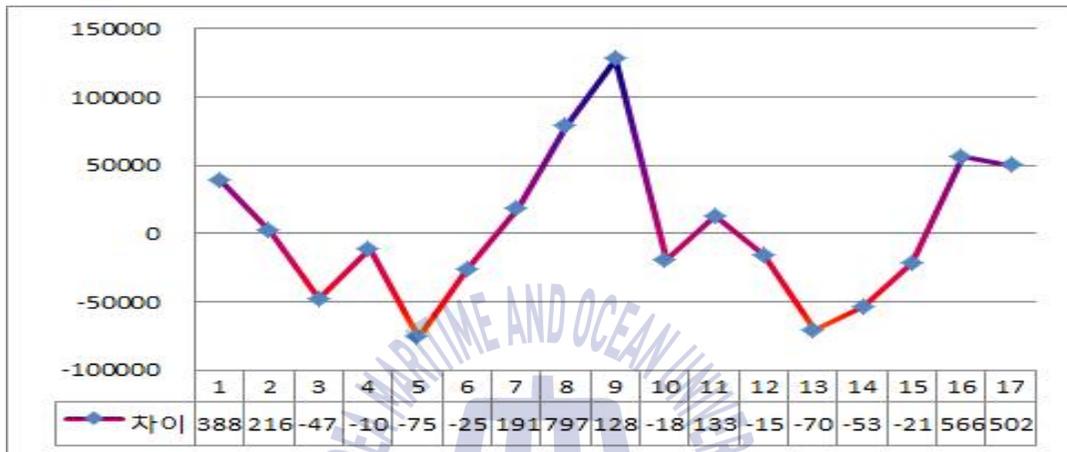
Fig. 23 연도별 한중 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24는 연도별 한중 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제시한다. 2018년에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2012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Fig. 24 연도별 한중 무역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5.1.2.2 한중 상품수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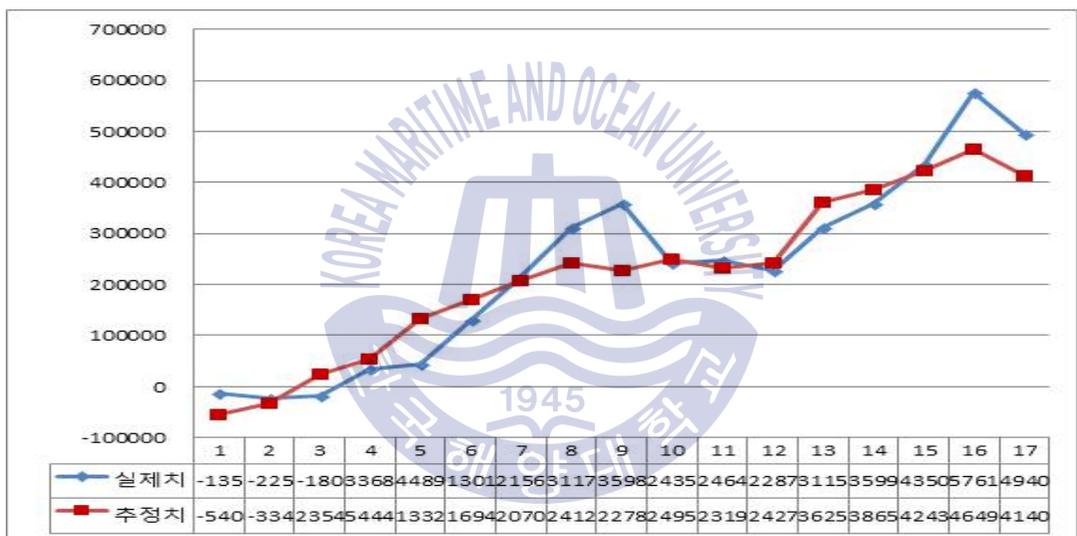
Fig. 25는 연도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한중 상품수지는 2002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다소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드배치는 상품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속과 한국의 사드배치가 공론화되면서 한미 협의로 인한 사드 결정에 불만을 표시한 경제보복조치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격렬한 반대로 동북아지역의 긴장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은 과거에도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면 경제보복을 일삼아 왔다. 한·중 상품수지가 2015년 이후 급격한 하락을 야기한 원인은 한국정부가 2016년 7월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한국측 인사를 강등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한류스타의 중국내 활동을 전면금지하는 한류 제한령 지시, 한

국민의 비즈니스 발급요건 강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세무조사 및 소방안전시설 점검,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각종 문화행사 중단 및 취소, 한국행 여행 전면 금지 등 드러난 경제보복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핵심이익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한·중 상품수지의 하락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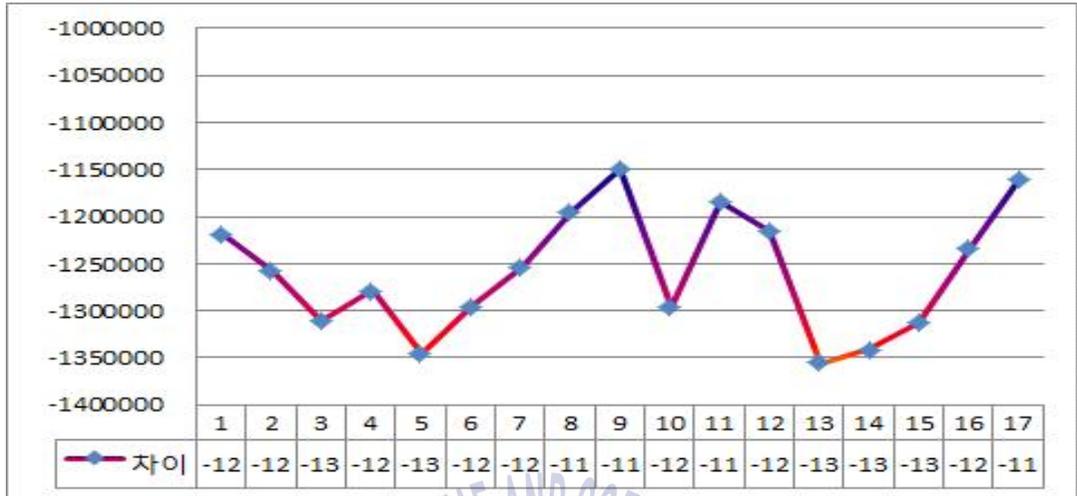
Fig. 25 연도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26은 연도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2008년에 가장 크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에 가장 적은 차이가 나타났다.

Fig. 26 연도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27은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2014년 3/4분기, 2015년 2/4분기, 4/4분기, 2016년 2/4분기에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과 신중히 협의 중이라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의 보복조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Fig. 27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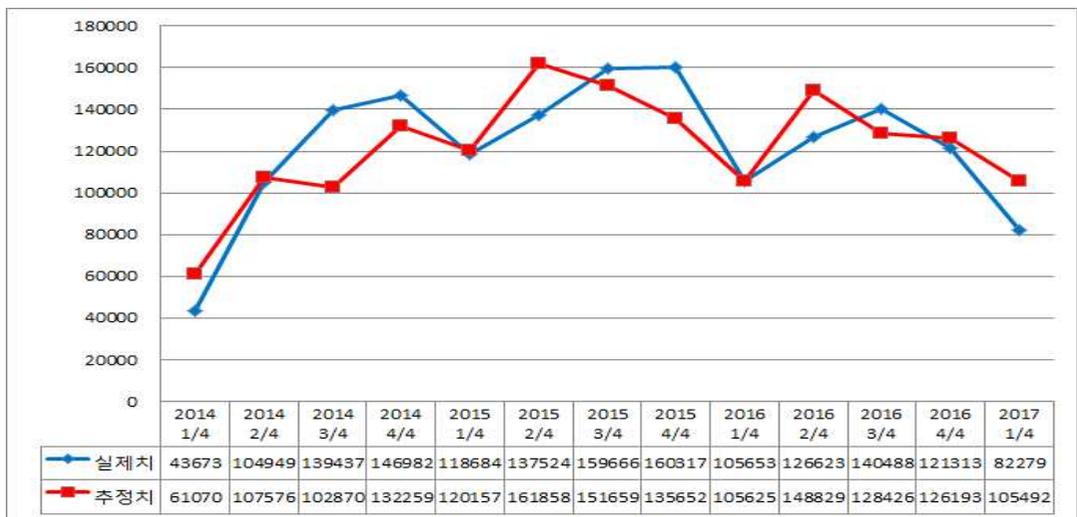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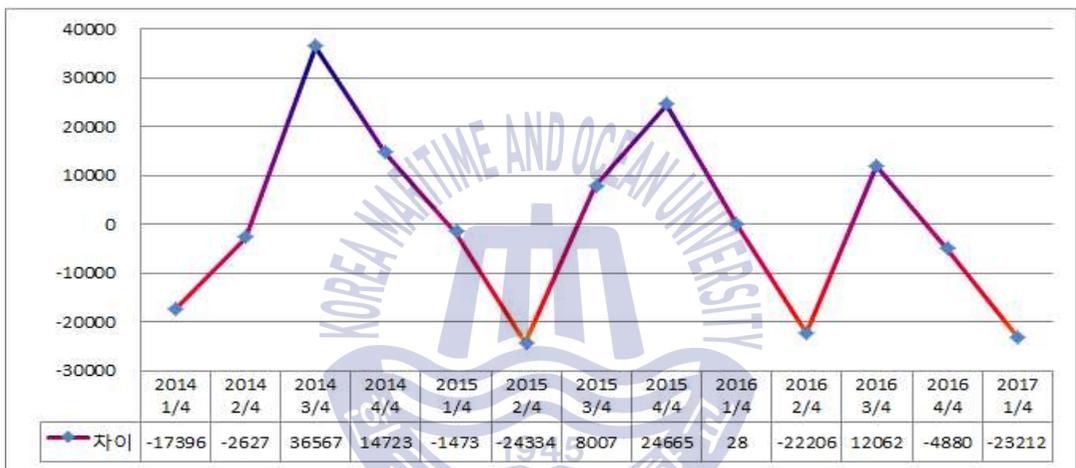


Fig. 28은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제시한다.

2015년 2/4분기, 2016년 2/4분기, 그리고 2017년 1/4분기에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4년 3/4분기와 2015년 4/4분기, 2016년 3/4분기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8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5.1.2.3 한중 여행수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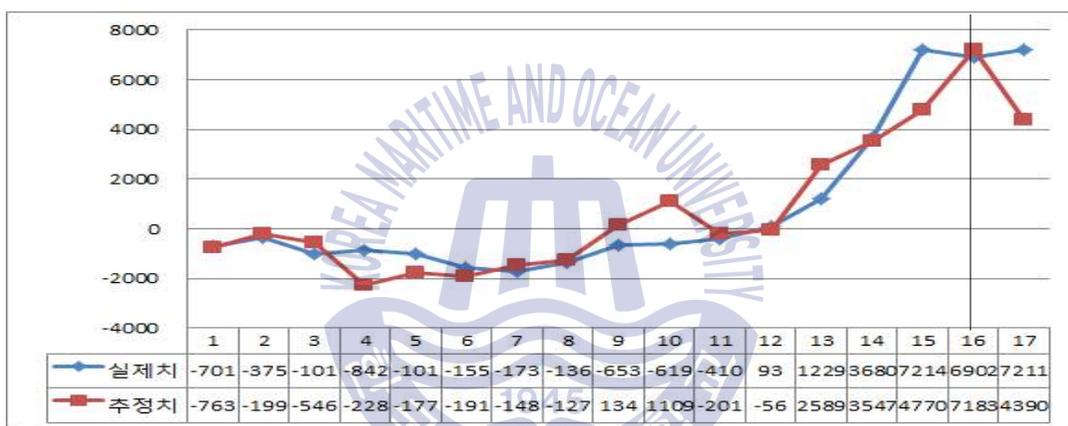
Fig. 29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한중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한중 여행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는 2003년,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4년에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후 2015년에 실제치와 추정치는 거의 비슷하였으나 2016년에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 사드배치가 여행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내국·외국인 관광객의 급감, 경기침체의 지속 그리고 한국의 사드배치가 공론화되면서 한미 협의로 인한 결정에 불만을 표시한 결과가 혼재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여행수지가 2015년 이후 급격한 하락을 야기한 원인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내국·외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상용비자 발급조건 강화, 한국행 여행 전면 금지, 저가 관광상품 규제, 한국행 단체 관광객 20% 감축 지시 등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한·중 여행수지의 하락으로 관광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9 연도별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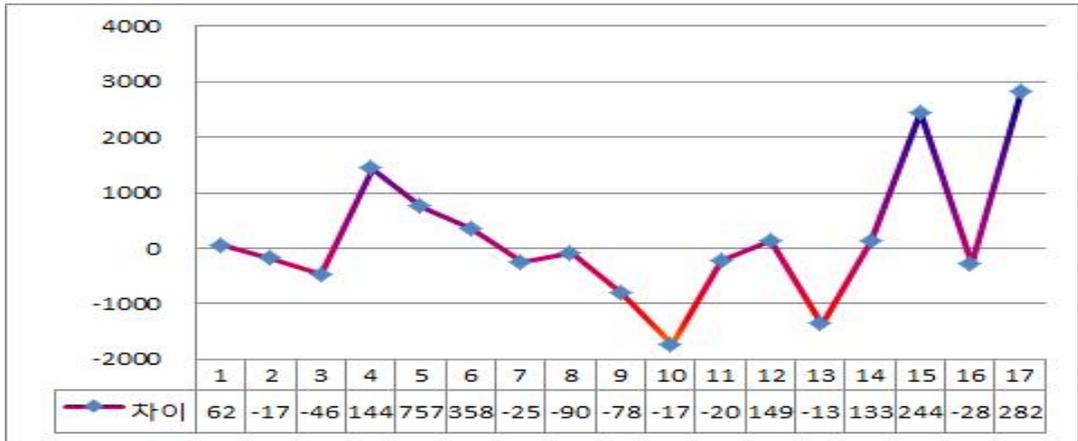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30은 한중 연도별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2009년, 2012년, 2015년에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의 하락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가 2009년에도 지속된 결과로 판단되며 2012년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여행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0 연도별 한중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31은 분기별 한중 서비스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한중 여행수지의 미공시로 인하여 여행수지가 서비스수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비스수지를 여행수지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서비스수지의 실제치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기별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치와 추정치의 간격도 2014년 3/4분기, 2015년 3/4분기, 그리고 2015년 4/4분기부터는 일정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따른 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Fig. 31 분기별 한중 서비스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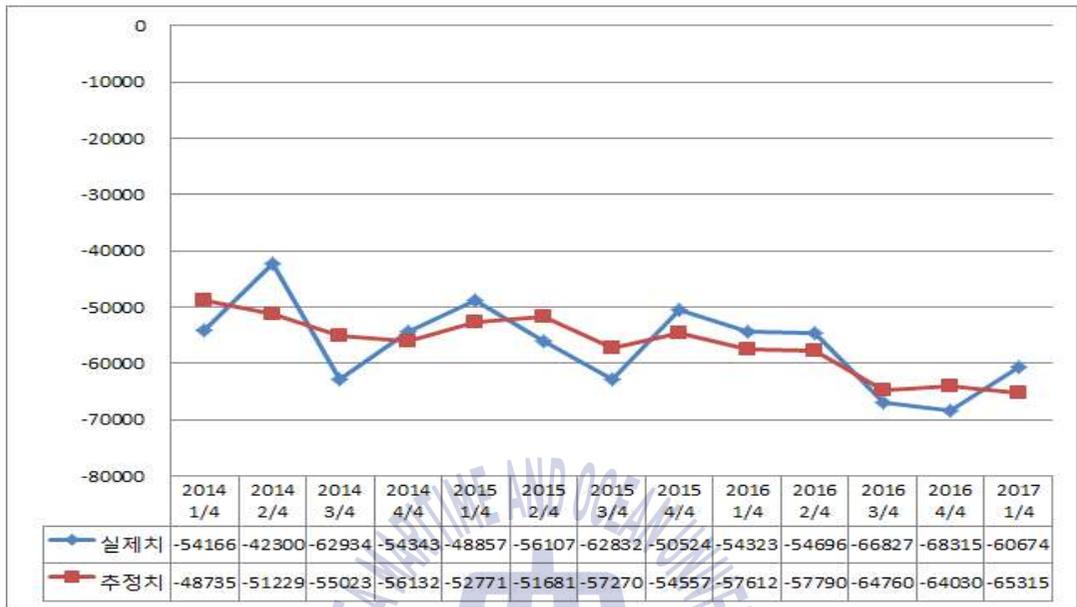


Fig. 32는 분기별 한중 서비스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제시한다. 2014년 3/4분기, 2015년 2/4분기, 3/4분기, 그리고 2016년 4/4분기에 한중 서비스수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Fig. 32 분기별 한중 서비스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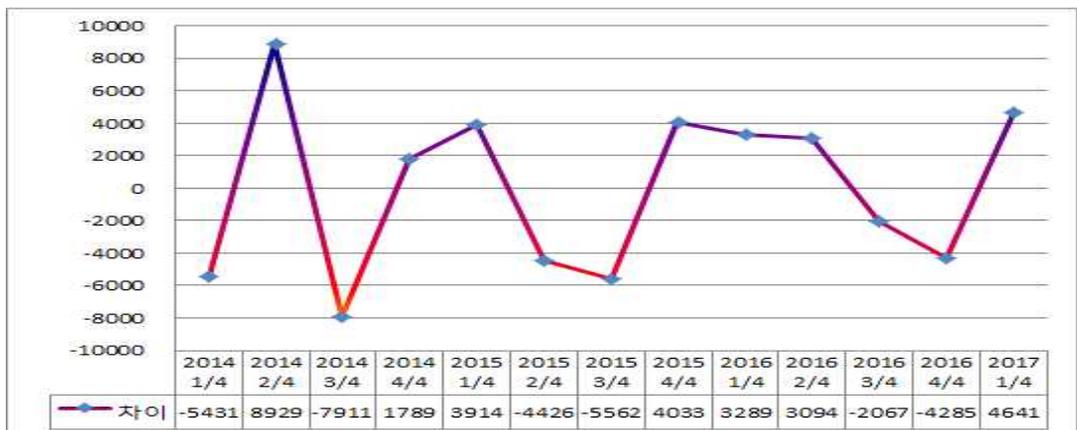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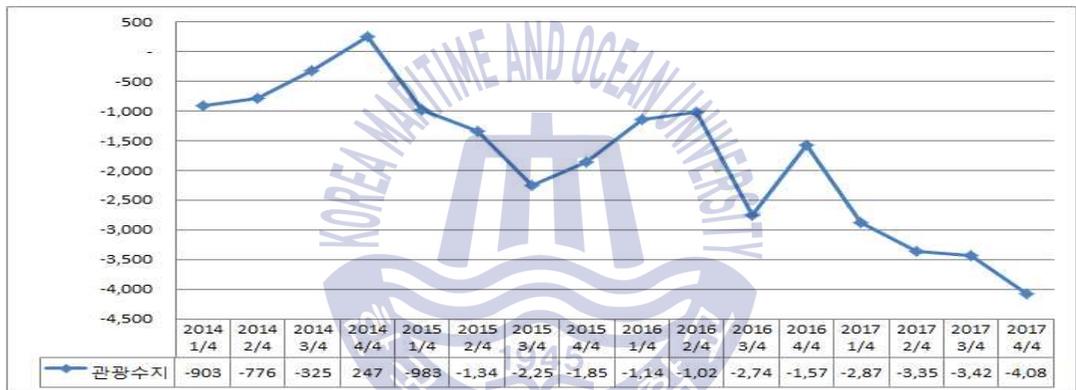


Fig. 33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기별 관광수지의 현황을 제시한다. 관광수지는 관광수입에서 관광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시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보복조치가 여행업종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수지를 제시한다. 관광수지는 2014년 4/4분기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중국이 상용비자 발급 조건 강화, 저가 관광상품 규제, 한국관광의 전면금지 등 한국에 대한 관광을 강하게 제한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Fig. 33 분기별 관광수지의 현황



## 제 6 장 결론 및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정부가 2016년 7월 8일 사드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의 군사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협의에 들어간 시점부터 여행비자 발급제한, 일부품목에 대한 통관기준 강화, 한국 드라마 방영제한 등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한국 여행상품 판매 등 금지를 지시하였고, 중국 현지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확산되고, 소방당국은 특정 유통계열사 매장에 대한 표적점검을 통해 매장의 1/3 가량을 영업정지 시켰으며, 관영언론의 반한감정은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사드배치가 국제상품수지 및 여행수지, 그리고 한·중 상품수지 및 여행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다용(2015), 김지은·이형직(2017)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① 2000년~2014년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무역수지 회귀식을 산출한다.
- ② ①에서 산출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사드배치 사건기간에 해당하는 2015년~2017년의 연도별 무역수지 추정치를 산출한다.
- ③ 사드배치 사건기간에 해당하는 2015년~2017년의 무역수지 실제치에서 ②의 추정치를 차감하여 차이를 계산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여행수지의 합으로 2015년까지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이 2015년 사드배치를 공론화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견제로 인해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국·외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된 결과가 국제무역수지에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조장하고 한국산 소비재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수요를 급감시켜 무역수지가 급격히 하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국제상품수지는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사드배치가 국제상품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이 공론화되면서 주변 국가들의 외교적 갈등과 함께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로 인한 영향이 함께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국제여행수지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드배치가 국제여행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2015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국·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이 공론화되면서 중국에서 강한 불만과 함께 한국 관광상품 전면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함으로써 가져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넷째, 한중 무역수지는 한·중 상품수지와 한·중 여행수지의 합으로 하였다.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드배치는 중국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사드배치를 공론화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제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한국산 소비재 불매운동을 통해 수요를 급감시켜 무역수지가 급격히 하락하였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 상용 비자 발급 조건 강화, 한류 제한령 지시,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배제 등 한국의 사드배치를 국제적 위상으로 압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다섯째, 한중 상품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 사드배치는 상품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중 상품수지가 2015년 이후 급격한 하락을 야기한 원인은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한국측 인사를 강등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한류스타의 중국내 활동을 전면금지하는 한류 제한령 지시, 한국인의 비즈니스 발급요건 강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세무조사 및 소방안전시설 점검,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각종 문화행사 중단 및 취소, 한국행 여행 전면 금지 등 드러난 경제보복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중 여행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드배치가 여행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분기별 관광수지를 산출한 결과에서도 2015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자료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여행수지가 포함된 서비스수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2015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급감, 경기침체의 지속 그리고 한미 협의로 결정한 한국의 사드배치에 불만을 표시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 강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역국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에 관하여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중국의 무역정책과 그에 관련된 법제도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중국의 보호무역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관광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 사업체 대한 특별용자실시, 부가세 납부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국가의 관광 브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관광객 감소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한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사드배치가 국제무역수지 및 한중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기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근거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무역수지에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 한 이후의 사드배치로 인한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한계점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첫째,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한중무역수지의 여행수지에 대한 분기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드배치로 인한 시점별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사드배치로 인한 영향이 산업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산업별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김진경, 정규엽, 한희섭, 2017. 방중 한국인 관광객의 관광동기가 재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26권 제5호: 171-187.
- 김홍률, 2016. 중국의 TBT 규모추정과 한·중 FTA의 시사점. 무역통상학회지. 제16권 2호: 4~7.
- 김홍률, 2017. 한·중간 사드분쟁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2권 제3호: 211-230.
- 권용현, 이지상, 2018. 외교적 갈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드배치에 따른 이슈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7권 제1호: 67-94.
- 박근재, 2016.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23(1), 37-66.
- 박휘락, 2016.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 논란이 갖는 의미. 국제관계연구. 21(1). 33-63.
- 배형석, 양성국, 2017. 사드배치로 인한 항공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항공 경영학회지 제15권 제4호: 93-105.
- 연합뉴스(2017.03.08.). “ ‘사드반대’ 중국주장 근거있나… 中, ‘러시아판 사드’ 엔 침묵”
- 연합뉴스(2017.03.15.). 트럼프행정부 “오바마 ‘아시아 중시정책’, 공식적으로 종식(종합)”
- 연합뉴스(2017.06.28.). “중국 녹지그룹 제주상품 500억 원어치 수입 협약이행 지지부진” .
- 연합뉴스(2017.08.29.). “안갯속 한국경제…경기 주춤한데 北미사일 악재까지” .
- 연합뉴스(2017.09.03.).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 도발일지”
- 유현정, 주재우, 2017.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35(2) pp.167~186.
- 왕샤오커, 2017. 사드 문제와 한중관계의 구조적 문제점. 북한학연구. 제13권 제

- 2호: 137-163.
- 이다용, 2015. *중국에 대한 FDI가 중국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민, 2017. *THAAD 배치와 중국 정부의 對韓 관광산업 제한조치- GATS 협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국제 경제법 연구. 15(2): 7-42.
- 전혜영, 2017.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17-22호.
- 한재진, 천용찬, 2016.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 한재진, 천용찬, 2017.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한중간 경제 협력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7-10호.
- 최승환, 2017.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THAAD)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62(3).
- Cho, Y.C., 2010. *무역과 관련된 국제경제제재에 관한연구*. 복지행정연구, 26, 202-234.
- Chung, Jae Ho, 2009/2010. *East Asia Responds to the Rise of China: Patterns and Variations*. Pacific Affairs. Vol. 82. No. 4(Winter).
- Hufbauer, G. C., Schott, J. J., and Elliott, K. A.. 2007.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Peterson Institute Press: All Books.
- Jeremy L. Wallace and Jessica Chen Weiss. 2015. *The Political Geography of Nationalist Protest in China: Cities and the 2012 Anti-Japanese Protest*. China Quarterly. No. 222. June.
- Jessica Chen Weiss. 2014. *Powerful Patriots: nationalist Protest in China's Foreign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inghan Zeng, Yuefan Xiao, Shaun Breslin, 2015. *Securing China's Core Interests: the State of the Debate in China*. International Affairs. Vol. 91. No. 2.
- John R. Deni (ed), 2014. *Augmenting Our Influence: Alliance revitalization and Partner Development*.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 Institute/Army War College Press.
- Jones J., 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193-228.
- Kenneth Lieberthal, Wang Jisi, 2012.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Monograph Series Number 4.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March.
- Michael D. Swaine (eds.), 2013. *China's Military and the U.S.-Japan Alliance  
in 2030: A Strategic Net Assessmen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Pape. R. A., 1997. *Why Economic Sanctions Do Not Work*. International  
Security, 22(2), 90-136.
- Tom Donilon, 2013.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in 2013*. The Asia  
Society. March 11.

